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을 향한 탄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밝은 빛이 어두움을 환히 밝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39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8월 27일 (토) 제 1887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북한, 종교 자유 피해자 중 대부분은 기독교인

CT,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 신자들 억압 방법과 그들의 신앙에 관한 보고서 분석 보도

북한의 두 기독교 가정이 감옥 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눈을 뜬 채 기도하고 있다. 김정일 수용소에 먼저 들어온 다른 억류자는 그들에게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아니요.” 한 어머니가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들 앞의 운명을 직감한 억류자는 울기 시작했다. 다음날, 일행 모두 청진 수술 정제법 수용소로 이감되었고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온성군 구치소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기독교 수감자가 눈을

감았다. 그가 기도 중이라고 고백하자, 동료 수감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 집단적으로 그를 폭행했다. 이 이야기들은 2020년 북한의 종교 박해에 대한 보고서에 실린 참담한 이야기 중 일부에 불과하다. 범위 면에서는 획기적인 이 보고서는 알려진 데이터와 상호 참조된 117명의 탈북자의 증언에서 가져온 것이다 (117 Witnesses Detail North Korea's Persecution of Christians).

한국미래 이니셔티브(https://koreafuture.org)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 실태”를 통해 273명의 피해자의 증언과 함께 북한 형벌 제도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76명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였다. 다큐멘터리는 신원 정보가 있는 34명을 포함하여 54명의 개별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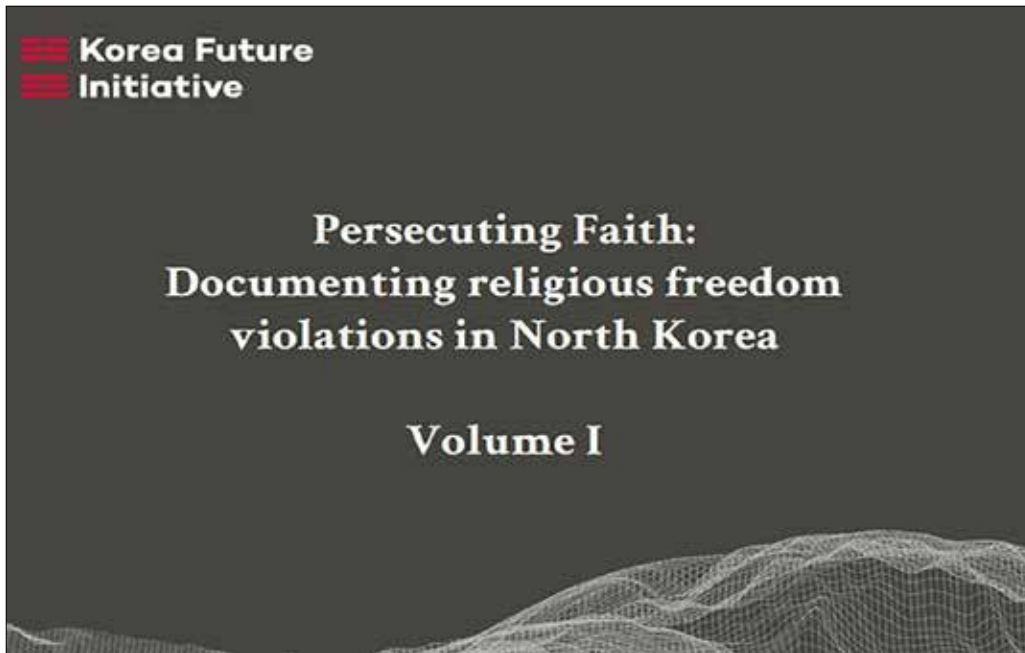
KFI는 이 정보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에서 개별 인권 침해자들에게 적용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한다.

KFI의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십 건의 위반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형벌 36건, 고문 36건, 처형 20건이 포함된다. 여성과 소녀들은 희생자의 60%를 차지한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

북한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19년 연속 1위로 선정한 오픈도어즈는 인구 2,500만 명 중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수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

KFI의 피해자 273명 중 기독교인은 80%에 달하는 215



명이다. 북한 정권의 박해를 받는 민속 종교인 사머니즘은 나머지 두 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대표한다. KFI는 스스로를 “비종교적이지만 세속적이지 않다.”고 규정한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KFI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제임스 버트는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박해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일부 피해자 증언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종종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온다.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자의적 체포, 구금, 투옥 및 심문이며, 일부는 같은 가해자에게 고통을 받는다. 이들은 85개의 물리적 위치(그중 10곳은 중국 내 형무소)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비밀 경찰과 시민 정보원 프로그램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부 기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픈 도어즈 아시아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사용하는 가명 잔 베르데르는 KFI의 문서화 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박해의 ‘이유’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북한의 공식적인 기독교와의 충돌은 18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무역 관계를 열려고 하는 미국 해군 선박과 함께 도착한 선교사를 참수했다. (3면으로 계속)



인스타그램 통해 복음 확산하라!

처치리더스컴, 교회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빠르게 늘리는 4가지 팁 소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은 디지털 세계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이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약 60%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이다. 따라서 해당 연령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밀스러워 보일 수 있다. 다음 아래의 조언은 알고리즘 너머를 보고 교회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필요한 광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Four tips to quickly grow your church's Instagram following).

- 1. 매일 사용하는 릴 기능
인스타그램 릴(Reels)은 귀중한 도구이다. 사용자에게 짧은 동영상(최대 60초 길이)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콘텐츠 형식이다.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달리 인스타그램 릴은 계속 남아있다.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릴을 매우 선호한다. 즉, 다른 사용자가 특정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콘텐츠가 바로 릴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1개의 릴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릴에 자막(Captions) 및 다른 문자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릴을 음소거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자막이 없으면 시청자가 메시지를 완전히 놓칠 위험이 있다. 인스타그램은 최근 스티커를 사용하여 매력적으로 자동 캡션을 하는 기능을 출시했다.

(16면으로 계속)

 시론 류승렬 목사 3면	 푸른초장 노승환 목사 4면	 평신도를 위한 조지신학 이길호 목사 7면
---	---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서,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료, 미용성형치료, 산전 및 임종치료

2022 전문강사들을 신입생 모집요강

문의: 박재민 전도사(213-220-6729, Jenny515280@gmail.com)

KIM Mission - 이사장이 - 취임식 및 명예이사장 추대식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퍼스펙티브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BC대교회의 원로목사)	 토이희만 목사 (선안보교회, TX)	 용장영 목사 (LJI Comm. Church, LA)	 손찬식 목사 (선디에고 침례교회)	 강대영 목사 (아스침례교회)	 김용식 박사 (미리암, 성모학 교수)	 임재량 목사 (NY하미니아교회)	 전광성 목사 (NY하미니아교회)
 김태수 목사 (보성교회)	 김성남 목사 (미국군교회)	 최관석 목사 (중앙아시아)	 김경화 목사 (US연방 VA, 체롤린)	 김정용 박사 (에티오피아)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이원준 장로 (서울 세로교회, 신원재부)	 최도문 장로 (지리산, 밀양시)
 이광현 장로 (JTA Inc(교회), NY)	 강대원 장로 (NBC대교회)	 최동석 장로 (프랑스 파리)	 황규안 안수집사 (전북 정읍)	 이순권 장로 (지리산, TX)	 임소연 장로 (텍사스주, 덴턴교회)	 강동협 안수집사 (Boston, MA)	
 김종대 장로 (보통교회)	 김상이 장로 (WCP, 로튼도, 워싱턴)	 김현대 박사 (C&P, 텍사스 대표)	 박한배 장로 (대구광역시 영호문화회)	 윤수현 장로 (선안보교회, TX)	 윤경경 권사 (선안보교회, TX)	 육진연 권사 (선안보교회, TX)	

우리 김 미션은 “세상 모든 삶의 한창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 김경현 목사 (미국군교회)에 따라 주립교회도사역역임-현 미연방 베테랑사병원 재출판과 모든 평신도 동역자들이 각 삶의 현장에서 임하며 자비함 사역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미주 전 지역 교회들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세미나 혹은 선교 사경회로 주말 2-3일간에 마지막을 원하는 지역교회, 선교단체 혹은 작은 규모의 선교현지 선교사님들의 모임이라도 있으면 직접 가서 자비함으로 섬겨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The noble man makes noble plans, and by noble deeds he stands!)” (이사야 32:8)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미주본부 (626-354-2294), E-mail: 1020miracle@gmail.com

발행인 칼럼

조종사가 아직 오지 않았다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얼마 전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되었다. 갈 때 30여 분이 연착되었다. 올 때도 그 정도의 연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움츠렸던 항공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며 살짝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0분이 아닌 3시간 늦게 출발한 것이다. 중간에 연착 이유를 안내방송으로 듣게 되었다. 조종사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행기도 있었고, 승무원도 있었고, 승객도 있었다. 그러나 조종사가 없으니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늦잠 자다가 못

오나, 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아니면 조종사가 갑자기 바뀌었나, 여러 생각 가운데 맞이한 조종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을 가로질러 비행기 안으로 쏙 들어갔다. 우리도 얼마 있지 않아 탑승할 수 있었다. 승무원이 출발 때 들릴 듯 말 듯 웃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작 조종사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아무 말이 없으니 조종사를 따듯하게 이해해 주고 싶어도 이해해 줄 수가 없었다. 아무튼, 백 수십 명에 이르는 승객들의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 간 채 비행기는 밤늦게 뉴욕에 도착했다.

뉴욕에는 허드슨강이 흐른다. 뉴욕 업스테이트부터 맨해튼에 이르는 수려한 모습의 허드슨강이 통곡의 강이 될 뻔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미국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불과 일본 만에 비상 상황을 맞게 되었다. 새떼와 충돌한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엔진을 모두 꺼야 했다. 조종사 체슬리 설렌버거는 허드슨강에 동체로 불시착하기로 결단하였다.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행동 지침을 일러 주었다. 마침내 동체착륙은 성공했고 비행기 안에 155명에 달하는 승객과 승무원은 안전하게 물로 나올 수 있었다. 그 조종사는 모든 사람이 다 내린 뒤에도 마지막까지 비행기 안을 두 번이나 살펴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 조종사가 자기 비행기 자리에 아직 없다면 승객들이 어떤 사람이든, 승무원이 얼마나 노련하던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또 조종사가 그 자리에 있다 하여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승객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어떻게 이르겠으며, 모든 비상 상황에 최고의 역량과 고도의 헌신을 쏟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가장 먼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고 가장 나중에 자기 자리를 떠나겠다는 마음과 자세가 아닌 조종사가 운영하는 비행기 안의 승객과 승무원은 비애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실제 앞서가셨다. 리더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 단체 여행 중에 필자가 목사인 것을 여행 안내자가 알게 되었다. 가룩한 마음으로 그가 들고 다니던 조루색 깃발을 내가 들고 다니겠노라 자처했다. 그 깃발을 든 다음부터는 몇 날 동안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었다. 내가 잘 못 가면 30여 명이 우르르 틀린 길로 가는 것이요 내가 내 자유시간을 누리겠다고 느슨해 있으면 내게 일을 맡긴 여행 안내자의 계획이나, 모든 여행객의 시간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조종사가, 깃발을 든 자가, 리더가 있어야 할 각자의 자리에 끝까지 책임지리라는 마음으로 먼저 와 있다면 그들의 공동체는 바르게 갈 것이요 도중에 예상 못 한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실업 문제는 교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TGC, 교회가 앞장서서 실업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

미국 연방 정부에 따르면 실업자가 되기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1) 일이 없음 (2) 구직 중임 (3) 일할 수 있음. 사람들은 (임시든 시간제나 그 이상이든) 일이 있으면, 고용 상태로 간주된다. 고용도 또 실업도 아닌 사람들은 아예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미국에서 노동력은 군에서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요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국한되지 않으며,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구직 중인 열여섯 살 이

상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노동력은 또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업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원하며, 일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 부분은 "구직 의욕을 잃은 근로자"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Economics for Church Leaders: Unemployment Is a Spiritual Problem).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인간은 태초부터 일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알려준다.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창 2:15) 하셨다. 우리 대부분은 직장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진 베이스(Gene Veith)는 이렇게 말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방법은 농부, 재분업자, 빵 굽는 사람의 소명을 통해서이다. 여기다가 트럭 운전사, 공장 노동자, 은행원, 창고 직원, 계산대 직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나라 경제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제 단계가 당신과 내가 오늘 아침 식사로 먹었던 토스트 한 조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

일자리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인간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경제 시스템이 도덕적으로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직업은 개인, 지역 사회 및 경제적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실업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실업은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안정감은 나빠진다는 보고가 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일 년 이상 실업 상태였던 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우울증을 앓거나 아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실업 상태가 5주 이하인 사람들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2016년 글로벌 설문조사에서도 젊은이라고 해도 실업 상태에서는 직업을 가진 노인보다도 신체적 복지가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신체적



복지에 관해서는 나이보다 고용 상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실업 상태인 경우에 특히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가진 젊은 성인(15-29세)은 직업을 가진 노인(50세 이상)과 동일한 수준(31%)의 복지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업 상태인 젊은 성인은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낮은 복지 수치(26%)를 보였다.

실업이 주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은 자살로까지 이끌 수 있는 절망감이다. 란셋 정신학 저널(Lancet Psychiatr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자살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직간접적으로 실업과 관련되었다고 한다.

장기 실업은 단순한 정신 건강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영적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교회는 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국 내 유일한 기관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직업을 찾도록 돕는 것은 더 넓은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며,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의 관심사가 되어야만 한다.

실업에도 유형이 있다.

구조적 실업(예: 일자리는 텍사스에 있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많은 경우), 일시적 실업(예: 직장을 옮기는 과정 중에 있는 경

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사례처럼), 자발적 실업(예: 현재 임금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직하지 않는 경우), 계절적 실업(예: 여름에 일이 없는 스키장 근로자)과 같이 실업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은 시간제 또는 임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련 개념이다.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 때문에 적지 않은 경제학자는 건강한 경제 속에는 자연적 실업률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내 자연적 실업률이 3.5퍼센트에서 4.5퍼센트 사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구의 약 4퍼센트 미만이 실업 상태일 때 우리는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자리를 원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또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노동력 주변부에 붙어 있는 인력"으로 간주한다. "구직의 의욕을 잃은 근로자"는 노동력 주변부에 붙은 사람 중 하나의 하위 집단에 속한다. 구직의 의욕을 잃은 낙담한 근로자는 다음 네 가지 이유 중 하나로 현재 구직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 그들은 자신의 전문 직종이나 영역에서는 일자리를 찾

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그들은 이전에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3. 그들에게는 교육이나 훈련, 기술, 경험이 부족하다. 4. 고용주의 눈에 자신들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유형의 차별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노동통계국은 매달 흔히 "고용 보고서"라고 부르는 고용 상황 요약을 발행한다. 여기에서도 가장 널리 인용되는 수치가 실업률이다.

실업률은 구직 의욕을 잃은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기에 보고서 수치 하나만 가지고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난달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에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더 중요한 통계는 비농업 고용의 추세이다. 그리고 그 추세의 수치이다. 인구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경제는 10-1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의 수가 대체율보다 높은 경우에 고용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 숫자가 낮다면, 전망이 부정적이고 경제가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목회전공
+ 선교전공

2022년 가을학기 수업일정

8월 22일-10월 16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inistry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상황화)

10월 17일-12월 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사역을 위한 문화인류학)

2023년 봄학기 수업일정

1월 9일-3월 5일
DI 8280 Doctoral Research Methods (사회조사 방법론/논문작성법)

3월 13일-5월 7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 치유)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북한, 종교 자유 폐해자...

(1면에서 계속)

그러나 1907년까지 지금의 수도인 평양에서 기독교 부흥이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일제 강점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매우 유명해졌다.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의 점령으로 분단된 1945년까지 북한에는 공산주의 창시자인 김일성의 부모를 포함한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KFI의 서문은 2019년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증언한 인권운동가 주일홍씨가 쓴 것이다.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에서 자라면서 배운 두 가지 이야기를 묘사했다.

하나는 미국 선교사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는 아이의 이마에 '도둑'이라는 단어를 산으로 새긴 것이다. 또한 아버지는 최고령지도자를 위해 딸을 희생시키면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집으로 달려가 영예를 안았다.

베르메르는 "우리가 종종 북한을 못된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이상한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베르메르가 제공하지 않음)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반하는 전직 북한 농업 연구

원에 관한 것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지금은 풍선을 만들어 국경을 넘어 적절한 위치와 고도에서 내용물을 방출한다.

그의 소책자에는 "내가 위기에 처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손길을 내민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나는 그들의 믿음이 북한에서 들은 것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들은 '사랑'을 전하며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북쪽에서 그러한 자료를 소유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 KFI 보고서의 많은 일화는 성경이나 기독교 문헌이 투옥으로 이어진 증거로 기록되어 있다. 한 북한인은 야의 시장에서 1,000명의 군중 앞에서 말뚝에 묶여 처형되었다.

버트 대변인은 "일부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원인이 전혀 아닙니다. 가난, 기아, 여성혐오와 성희롱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인해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 순찰대를 통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거나 뇌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가는 우회 경로를 찾으면 많은 사람이 연간 1억 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불법 지하 세계에서 가난한 농부들의 성 노예가 된다.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노르웨이 기독교 단

체인 스테파누스(Stefanus)의 미국 사무총장인 에드 브라운은 "그들을 선택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폭력적인 인신매매범들과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전 가옥에서 안전 가옥으로, 그런 다음 중국 밖으로 옮긴다."

스테파누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구원자: 김씨 정권으로부터의 탈출"을 제작했다. 2019년 국제 기독교 영화 및 음악 페스티벌의 공식 선정 작품으로 1996년부터 취약계층인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 온 HHK(Helping Hands Korea)의 작품을 선보인다.

HHK는 현대식 지하철도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정권에 의해 '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중앙집권화된 재화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이 투옥으로 이어진 증거로 기록되어 있다. 한 북한인은 야의 시장에서 1,000명의 군중 앞에서 말뚝에 묶여 처형되었다.

버트 대변인은 "일부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원인이 전혀 아닙니다. 가난, 기아, 여성혐오와 성희롱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인해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 순찰대를 통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거나 뇌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왔을 때 국가가 준비되기를 원한다.

기독교인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연결하려 하는 레아 인터내셔널에 의해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은 국가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 교육 및 경제 개발을 촉진한다.

레아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인 제니스 윌슨은 "북한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접근방식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고통을 완화하고, 고품질을 즐기며, 편견에 다른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윌슨은 "인권 옹호라는 정의로운 일과 자비 중심의 인도적인 정신적인 사역 사이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최선의 접근방식에 대해 격렬한 의견 불일치가 대타로 각각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팔이 될 수 있다.

'세속적이지 않은' KFI도 이에 동의한다.

버트는 '인권은 조사와 문서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통합과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희생자들을 돕는 단체들은 매우 중요하며 이 일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KFI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서화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위한 상황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문서화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KFI에 따르면 1권에만 해당하는 보고서의 일하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18년 평안북도 국가안전보위부 유치장에 38세 남성 이 규광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감방을 들여다보더니 "왜 국가가 금지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다.

성경을 소지한 죄를 지은 죄수는 "그저 직접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있고, 일부 주에서는 무료 전화번호나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신이 속한 주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실업 보험은 주로 고용주가 지불하는 연방 및 주 세금(연방 실업세 및 주정부 실업세)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주가 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에, 실업 보험은 사실상 간접적인 근로자 보상의 한 형태로도 간주될 수 있다.

• 해당 주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 수당은 손실된 임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이전에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주마다 다양한 공식을 사용해 금액을 산정하지만, 모든 주가 예외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 소득을 고려한다.

실업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연방 소득세 납부를 위해 수혜자는 급여 금액의 최대 10퍼센트의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주가 웹을 통한 실업 수당 신청 제출을 지원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을 보면서



류영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다. 자폐증을 가진 주인공이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해 적응하는 스토리다. 장애를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실에서 분투하는 삶을 세심하게 잘 보여준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대해 한 가지 이상한 반응이 의외로 장애인에 대한 단편에서 나왔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는 이 드라마에 대항하여 장애인들이 받는 실제적인 아픔을 그리는 두 컷의 만평을 올렸다. 우영우란 스토리는 감동적이지만, 실제 장애인 삶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여전히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 차별을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많이 배려하는 나라다. 그러나 차별이라는 말은 한인 1세대라면 누구라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오늘도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인데 2천 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는가? 심지어 신약성경으로 가장 처음 기록된 야고보서에도 차별에 대하여 먼저 문을 연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1). 왜 차별하지 말라 하는가? 야고보는 세상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만큼 차별이 극심했다는 말이다. 로마 시대는 남성 우위 사상이 만연했던 사회였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 하수구에 어린아이 시체가 가득한 것도 남아있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여자아이를 버린 것이다. 심지어 유대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사두개파들은 주로 부유층이 많았다. 일반 유대인들을 차별하며 대했던 시대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차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법과는 다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열두 해 혈루증 앓은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했던 세리장 사게오, 사회에서 격리되어 외롭게 살았던 10명의 나병환자들,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준 분이 예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렀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한다. 기독교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의 급진성이다. 사람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한 말이 있다.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도 한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 뒤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로는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고 가까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사람의 눈에는 참 어려서 보인다고. 전염병이 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격리시키는 일이다. 1세기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죽어가는 형제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던졌다. 그 사랑으로 로마가 무너졌고, 기독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지게 되었다.

이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방문했을 때, 토론토 근교에 라르주 데이비드레이크 장애인 공동체를 찾아가기 기회가 있었다. 보기에 좀 부당스러운 장애인 그리고 듣기 좀 힘들 정도로 괴성을 지르는 아이도 있었다. 이곳이 유명해진 것은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까지 섬겼던 곳이기 때문이다. 1971년부터 예일대학교 교수, 1981년부터 하버드대학교 교수직에 있다가 1986년에는 올라가는 삶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마지막까지 삶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따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 자체가 말해준다. 영혼을 향한 기쁨을 마음껏 가졌을 때 장애인을 위해 섬기는 일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

우리 삶에도 연약한 자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으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참 부당스러운 존재였던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든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노라. 이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크리스천은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preachchrist@kccp.org

실업문제는 교회의...

(2면에서 계속)

정부는 실직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실업 수당을 제공한다. 가장 일반적인 혜택은 실업 보험에서 지급하는 주간 급여이다.

실업 보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실직한 직원에게 임시 수혜금을 제공하는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각 주는 자체 실업 보험 혜택 자격 지침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자격이 된다.

• 실직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어야 한다. 이견 대부분의 주에서 일자리가 근로자 숫자보다 적어서 실직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근로 및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람들은 정해진 "기준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한 해당 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 청구가 접수되기 전 마지막 5개 분기 중 처음 4개 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 해당 주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 수당은 손실된 임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이전에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주마다 다양한 공식을 사용해 금액을 산정하지만, 모든 주가 예외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 소득을 고려한다. 실업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연방 소득세 납부를 위해 수혜자는 급여 금액의 최대 10퍼센트의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주가 웹을 통한 실업 수당 신청 제출을 지원하고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Includes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for each.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선교 후유증

선교를 다녀오면 잠시 선교지의 일들이 충격과 감동으로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가난하나 해 맑은 아이들을 보며 뉴욕에 돌아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선교에 임할 것을

결단하게 된다. 의료선교를 담당했던 분들은 그곳의 사정을 이해하며 효과 있게 일하기 위하여 단단한 준비를 각오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선교지의 일들이 잊혀지고 선교 가는 날이 가까이 오면 부담으로 밀려온다. 너무 여기에서 삶에 젖어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도미니카 공화국 한 곳을 22번째 일 년에 3번 선교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부담이 되곤 한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뉴욕의 일을 잊고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나 여기에서 삶에 익숙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어 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여기 뉴욕의 일이 너무

바빠 그 일까지 하기에 너무 힘겹다는 생각이 들고 그곳의 더위와 불편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곳에 가면 높은 습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고 얼굴이 붓고 배탈이 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엔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가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곳에 뿌려 놓은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주 좋게 맺혀지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선교는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매는 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되풀이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선교 후유증

이 생긴다는 것이다. 나는 22년 동안 일 년에 세 번을 선교지에 가다 보니 이제는 여기가 나의 일터인지 선교지가 나의 일터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여기 오면 그곳 사람들이 걱정되고 거기 가면 뉴욕이 그리운다. 그러다 보니 나는 두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뉴욕커와 도미니칸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런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선교 후유증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한쪽이 걱정되고 그리운 마음이 드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진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성경을 보면 사도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자신이 선교했던 곳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편지를 썼다. 그는 한곳에 머무르면서도 다른 곳을 염려하고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선교 후유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선교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사도들의 마음이기 때문이라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노승환 목사
(찬양교회)



전에 없던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아 나라도 개인도 그랬지만 교회들도 처음엔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조금 뚜렷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역시도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William Willimon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들려주는 예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먼저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한과 슬픔을 우리는 짐작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선교 갔던 미국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 사람들에게 종말은 복된 소식이나. 그동안 종말론은 무섭고, 끔찍하고, 공포를 자아내는 괴기하기까지 한 교리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소망을 주는 교리구나. 이 힘든 세상 그레도 살아갈 힘을 주는 교

무너지리라. 그리고 세상 끝날에 관해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한 장만 뒤로 가보아도 확인이 됩니다. 23장 1절 위에 제목이 제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을 꾸짖으시다”입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 맹인들이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렘돈 두 뉘 현금 이야기입니다. 현금함에 부자들이 돈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렘돈 두 뉘 넣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현금에 관련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은 것처럼 너희도 현금 열심히 해라,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과부의 현금 이야기 시작 바로 전 구절을 보세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당시 종교가, 유대교가 종교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한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 41절에서 44절 자기에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출현을

는 분명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재앙과 고난도 저주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코비드 19로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코비드 19 이전과 똑 같이 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체계가 무너지고, 그 frame이 깨지면서 본질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은혜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필요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건물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거나 중요한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우리 신앙을 지켜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배는 역시 이산도, 저산도 아닌, 즉 예배에 있어 핵심은 시공간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러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긴 거품들을 제거하고 다시 본질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이 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복미 교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국 개신교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이버, 이단이나 일부 교회만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전통 교회들도 전혀 다를 바 없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건커녕 민폐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다시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들려온 소리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천지개벽이 조용히 된 적은 없습니다. 와장창 소리 내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들이 발악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수선하고 혼돈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새 질서가 세워지는 기간이기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분명 2020-2022년을 그냥 예사로 온 때였다고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2-3년은 분명 하나의 큰 분수령을 이룬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코비드 19로 인해 지금 종말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물에 갇혀있으랴? 하셨고 솔로몬의 병헌기도 중에도 저 하늘,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값지게 드러나고 그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말하자면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시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미니 종말이라 할까요? 종말을 약간 미리 맞춘다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던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요소가 많이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궁극적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3:37-24:2

미국 어느 교회에서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로 단기선교를 갔답니다. 선교 마지막 날 저녁에 선교팀원들과 온두라스 현지인 교인들 몇 분하고 함께 둘러앉아 함께 찬양도 하고 간증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자고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좋게 여겨 한 사람씩 돌아가며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하고 왜 좋아하는지 짧막하게 이유도 설명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

다가 온두라스 현지인 어떤 나이가 꽤 드신 여자분 차례가 되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씀하시는 데 이 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질 것이니 말씀과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갑분싸’ 되었겠지요. 함께 있던 미국 단기 선교 팀원들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을 좋아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 말씀이 위로와 용기를 주지? 속으로 그런 생각들 하고 있을 때 통역을 통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내가 자식이 다섯 있었는데 그중 넷이 5살 전에 다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다섯을 낳아서 그중에 넷이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안고 이 어머니가 통곡하

리구나. 이 세상 현재 체제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질서로 이루어지는 새 세상이 있으리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나. 이게 복음이나. 동이가 되시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부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 다섯에 넷을 영양실조로 먼저 장례 치러야 할 정도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망하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이 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기만 한 사람들. 이 세상 가치관에 너무도 잘 어울리고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나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독교의 종말론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간증은 선교 갔던 미국 교회 단기선교 팀원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 세상은 무너져야 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무너지면 안 되는 세상인가?

오늘 본문 삼은 마태복음 24장 1, 2절을 시작으로 25장까지 이어지는 예수께서는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 교훈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신 배경이 어떠한가? 어떤 문맥의 흐름 가운데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4, 25, 26, 27, 29...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은 저주 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정도로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또 신랄하게 당시 유대교에게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그러다 37절에 오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24장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장면을 기록하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며 감탄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방금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고 욕하고 저주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꾸짖고 저주하신 겁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성전 건물을 너무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복음서가 사용하는 기가 막힌 대조법이지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복음서의 경우에는 다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언 전에 어떤 사건을 배치해 놓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기대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잘못된 체계가 무너지고, 그릇된 틀이 깨지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이 외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타락하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그 체계가 무너지고 틀이 깨지면 본질은 더 값지게 드러나고 그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말하자면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시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미니 종말이라 할까요? 종말을 약간 미리 맞춘다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던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요소가 많이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궁극적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교도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성전 무너졌지만 함락된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빼내어 왔기에 종교를 지켜냈습니다. 16세기 온갖 미신과 탐욕과 탐문 우상으로 타락한 교회를 맞서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믿음이라 외치면 서요. 코비드 19는 그 자체로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성전 되신 신앙은 원래부터가 virtual 신앙, remote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그 옛날 다윗,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물에 갇혀있으랴? 하셨고 솔로몬의 병헌기도 중에도 저 하늘,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값지게 드러나고 그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까? 고백했었습니다. 건물 없어도 우리는 팬데믹 기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모임, 순모임, 목장 모임 하고, 기도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VBS 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 없는 교회가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 크기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비싼 건물 가진 교회는 오히려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건물은 흉물이라 손가락질당합니다. 교인수가 많다, 적다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이 정신없이 뱅뱅이 돌리던 교회에 매달리던 시대도 지나갑니다. 자녀들 신앙교육도 교회가 아니라 가정 중심이 되고 부모가 책임져야 함을 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사실이 확인되고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영적인 나눔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기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과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던 것들이 알아서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 회복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19로 인해 신앙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셨습니까? 교회가 더욱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큰 소망이 생겨났습니까?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지 못했다고 성도들이 신앙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더욱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셨습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다. 눈먼 자들아!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하시며 다 무너질 것이다 하셔서 마땅히 무너질 것들이 무너진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믿음을 얻어 새 창조 일꾼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sungnoppc@gmail.com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일까? 지난 주, 달라스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지 못했던 목회 연구모임이 있었다. 밤을 새우며 만났다. 목회자들의 만남은 항상 신비롭다. 특별할 것도 없고, 세상사람처럼 알뜰 먹거리들이 없어도, 웃음소리 기도소리 환호성이 그치지 않는 그런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종일 설교와 모임을 입술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음에 놀란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못할 만큼의 수다스런(?) 만남의 밤을 보낸 것이다.

달라스에서 돌아오는 집까지는 다섯 시간이 족히 걸리지만, 밤새 들었던 대화들을 곱씹다 보면, 이보다 더 긴 시간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연구모임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뭔가 아카데미한 형식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플라톤의 '심포지엄'마냥 아주 자유롭다. 나는 이야기는 온갖 주제들을 망라하는 것이었다. 조국교회와 미주 한인 이민교회들, 섬기

표를 확인하며 한걸음 두걸음 걸어가는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는 복된 성도,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 이를 통해 교회는 그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것이다.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강조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생기없는 마른 뼈와 같은 단순히 물려든 무리(Just Gathering)로서의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혹자는 교회가 왜 더 필요한가? 이 지역에는 기존의 교회가 그 역할을 맡아 있는데, 왜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역확장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과

시대가 되어 버렸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더 많은 코로나 불신자가 생성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럴 때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교회가 캠퍼스 교회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의 한인 이동 경로의 포석(?)을 두는 방식으로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때, 훗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 하여도, 미래를 대비하는 형태의 성장과 부흥을 맞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생개척의 가능성을 기존교회가 가지는 캠퍼스 건축과 잘 연결해서 실천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진다. 혼자하는 생개척이 아니라, 기존교회와 연합하는 개척이 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불 꺼진 주일 밤의 회복

온전한 주일 성수는 농부의 '종자 씨앗'같은 것이다. 과연 이 시대에 주일 성수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가? 한 주간의 삶의 휴식을 예배 가운데 만족할 수 있을까? 과연 농경사회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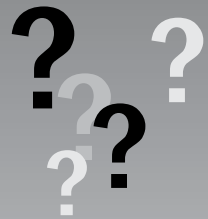
예를 들면, 당회와 제직회에 중요한 안건이 올려질 때, 그들이 궁급해하는 것을 미리 설명하는 것도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당회원이 어떤 사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듣게 되면, 답을 들은 후에도 질문한 사람이 어색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질문을 생각하고 최선의 답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을 권한다. 사역에 앞선 모두에서, 사역의 동기, 재정, 담당자의 역할 등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성도는 조용히 떠나간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자신의 선택적 보호취함의 길이 여러 방편으로 열려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겨진다

그가 선대하여 주시리라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잘 마치고, 중형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해서 최선의 목회를 감당하던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했다. 생각해보면, 이해 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지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니, 교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의 지도자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장차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평신도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봉사하고자 합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검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다우니의 Kang

A: 제가 다녔던 한국 총신에 들어가면 교정에 5가지 종신인의 모토를 새긴 돌이 나옵니다. 1)신자가 되라 2) 학자가 되라 3) 성자가 되라 4) 전도자가 되라 5) 목회자가 되라 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성자가 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른 인간,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폴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인 "Making of a leader"란 책을 보면 지도자의 인성 즉 인격을 시험하는데 3가지 검증(CHECK)이 필요한데 "진실성 검증, 순종검증, 말씀검증"이라고 합니다.

- 진실성 검증 : 진실성은 지도자의 인생개발 초석이요 뿌리이다
- 순종검증 : 먼저 권위 밑에 순종할 줄 아는 좋은 팔로워(Follower)
- 말씀검증 : 청중 앞에서 잘 표현하고 가르칠 줄 아는 말씀의 은사

1) 진실성 검증 (Integrity check) - 미국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integrity 라고 합니다. 진실성, 성실성을 말합니다. 진실성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믿음이란 피스티스는 진실이란 단어와도 똑 같습니다. 살살 거짓말 잘하고 진실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 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에 관해 말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면 믿음의 파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박윤선 박사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자주 인용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옛날 평양신학교 스테이시 로버츠라는 교장 선생님이 신학생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에 "재주는 없어도 진실하면 됩니다."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실성은 지도자의 인생개발 초석이요 뿌리입니다.

2) 순종검증(Obedience check) - 목회자나 지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려면 먼저 자신이 위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의만 하면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남을 쉽게 비판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자질 부족입니다. 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권위 밑에 순종할 줄 아는 좋은 팔로워(Follower)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2가지 순종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기 싫지만 하는 순종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자 하기 싫지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순종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순종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지 말라 할 때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3) 말씀검증(Word check) - 기독교 지도자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 앞에서 잘 표현하고 가르칠 줄 아는 말씀의 은사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열심히 배우고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비게이트 창설자인 도슨 트로트 맨의 말처럼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to know Him & to make Him known)란 모토를 좋아합니다. 내가 먼저 알고 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나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 교회, 세상, 은혜 -

는 교회와 자신의 남은 미래의 목회를 생각하며 나는 대화들이 주로 생각한다. 이 대화들 중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어쩌면 이 대화들은 그저 사적관계에 기반한 작은 소모임의 소견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종들의 평소 진지한 고민이라고 할 때, 교회와 목회에 대해 이렇게 주저리 나열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정체성을 잃어가는 교회와 성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체성'일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신앙고백'이며, 이것이 현실화되어 드러난 것이 '교회론'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의 신앙고백과 신앙고백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점이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의 목회는, 말씀의 신앙고백 위에 성경적인 참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영상시대를 통해 진리와 비진리가 아주 혼잡, 혼돈스럽게 전달되어 온다. 빨리 빨리 순발력있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턱대고 길을 떠나고 보는 어리석은 나그네가 아니라, 더디고 힘들어도 이정

표를 확인하며 한걸음 두걸음 걸어가는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는 복된 성도,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 이를 통해 교회는 그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것이다.

생(生)개척의 가능성

생(生)개척의 시대는 지나갔다. 말을 많이 한다. 예전처럼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건물 공간과 강단 그리고 음향시설과 간판만 달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때가 되며 절로 어린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게 되는 시대가 있었다. 아마도 그런 시기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속하게 말라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귀납적으로 설명하면서 개척이 멈춰진 교회 상황을 변론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은 개척이 필요없는 그런 무용한

가능한 형태가 주일 성수인 것이고, 오늘날 같은 초인터넷 시대에는 합당치 못한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주일 오전에 드리는 한 번 예배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구하게 될 때, 새로운 길이 보여질 것이다.

달라스의 손해도 목사는,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며 그 첫 단추가 '온전한 주일 성수'임을 말한다. 그는 교회 앞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여 받는 복이 이만저만 아님을 말한다. 그는 주일 아침, 본 예배를 캐롤톤에서 드린다. 오후 예배는 알렌에서 드리고, 저녁에는 커머스라는 곳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림을 그리고 준비한다. 그의 지론이 무엇인가? 주일 밤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일을 성수하게 될 때, 교회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광복 사역으로 주일에 쓰임받는 사역이 될 것이다.

예방 목회의 부흥

목회가 좋은 모습의 부흥을 이루어갈 때, 선배 목사님들의 들려주신 교훈이 생각난다. '속도 크기 숫자에 속지마라'는 말씀이다. 특별히 성장 지향적이 될 때, 간과해버리는 교회의 갈등 요소들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일순간에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방 목회와 같이 갈등을 미리 설명하고 중재하는 것이

는 속수무책이 되었다. 결국, 교회는 혼란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목회자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가까워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던 필자는 기도할 때마다 그의 형편에 대해 지극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가 오늘 말했다.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움을 통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결국 자신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서는 마침내 주의 종된 저를 선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의 고백이 계속 마음을 울려왔다. 주가 그의 종을 선대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과 확신이 되면 되겠다 싶은 마음의 기대를 가지게 된다. 목회가 잘 되면 목회를 계속하고, 목회가 안된다 싶으면 목사를 그만 뒤 버릴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는 누가 세우신 목사가 아니다. 목사의 소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속에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은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목회 평판과 세상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선대하심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가 책임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davidnje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21그램(g)과 0.9프로(%)

사람이 죽고 난 후 시신의 무게를 재면 살아 있을 때와 21그램의 차이가 나는데 그 줄어든 21그램이 영혼의 무게라고 한다. 나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만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한 무게가 아니어서 그 21그램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그 무게의 무게는 아니었을까를 짐작해 본다.

모았던 부에 대한 짐작의 무게? 아니지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모든 것보다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없었던, 끝내 놓지 않고 붙들고 싶었던 것은 '나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무게는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던 무엇이냐 불리는 것이 무게였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죽기까지 악착같이 놓지 못했던 무게, 그걸 놓아야 비로소 하늘에 오를 수 있었던 무게는 21그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한성운). 21그램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을 부르짖는 사람의 값어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21그램은 사람에게만 있는 영혼의 무게(?)라고 한다.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영혼이다. 생기(生氣)는 살아 있는 기운이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 역시 죽지 않는다. 단 죽지 않는 영혼의 거처를 다루는 것이 종교고 그 유일한 해결책은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의 육체는 수분이 70프로를 차지한다고 한다. 갓난아기와 노인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70프로의 수분을 유지해야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다. 0.9%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70프로의 물에 담긴 염분의 농도라고 한다. 이 농도가 높거나 낮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놓아주

는 주사액 링거에 0.9%의 염분이 섞였다고 한다. 의학의 발달로 정확한 수치가 계산되고 그에 따라 약이 조제되기 이전에도 살아 있는 동물에겐 적당량의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의학 증명이 된다. 에스키모인들이 순록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권력자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소금을 독점했다는 기록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다. 21그램은 방울토마토 한 개 정도의 무게에 불과하다. 바닷물의 염분농도 3%에 비교하면 사람의 몸속을 흐르는 0.9%는 극히 미량이다. 그럼에도 이 미량의 것이 사람의 존재까지 전부와 생사까지 좌우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묘마축하심을 엿볼 수 있는 불가사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벌써 3년째다. 그러나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다.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려야 강대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강대국 반열에 들기 위해 누리호도 쏘아 올리고 달을 탐사하기 위해 누리호도 보냈다. 화성을 탐사하며 찍어 보낸 사진이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야 지구에 도착을 했고 그 사진을 분석해 물이 있고 없고를 가리며 지구환경과 같은 조건을 행성을 찾으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미 주어진 지구를 독점했다는 기록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다. 21그램은 방울토마토 한 개 정도의 무게에 불과하다. 바닷물의 염분농도 3%에 비교하면 사람의 몸속을 흐르는 0.9%는 극히 미량이다. 그럼에도 이 미량의 것이 사람의 존재까지 전부와 생사까지 좌우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묘마축하심을 엿볼 수 있는 불가사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벌써 3년째다. 그러나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다. 우주를 향해 로켓을

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전 세계는 식량난과 에너지 파동을 겪고 있으며 미중의 파워게임도 연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쓰고서도 전전긍긍하는 이 잘난 사람들이 사는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사고들이다. 영혼의 무게가 설사 21그램이라 해도, 사람 몸속의 염도가 0.9프로라 해도 그런 것을 쉼하여 빼거나 더하는 것은 엄연히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의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에게 허락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시며 도우시게 하는 지혜! 지금은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할 시간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유럽 최악 기온에 모습 드러낸 2차대전 군함들

유럽에 닥친 극심한 기온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했던 독일 군함 수십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르비아 항구도시 프라호보 인근 다뉴브강에서 탄약과 폭발물이 고스란히 실린 채로 독일 군함 20여척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 군함은 1944년 나치 독일의 함대가 소련군의 진격을 피해 다뉴브강을 따라 후퇴하다가 침몰한 수백 척의 군함 중 일부다. 올 여름 강 수위가 100여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망가진 돛대, 회전포탑 등 선체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 군함은 다뉴브강 운항에 방해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출된 채 침몰한 군함 때문에 다뉴브강 운항 폭이 180m에서 100m로 줄어들었다. 침몰된 군함에 실려 있는 탄약과 폭발물도 위험요소다. 프라호보의 주민이자 독일 선박과 관련한 서적을 집필한 한 주민 A씨(74)는 "이곳에 남아있는 독일 군함은 프라호보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커다란 생태학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연준 "불편할 정도로 높은 물가 한동안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지만, 불편할 정도로 높은 물가가 한동안 유지돼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경제 성장세를 꺾을 정도로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났다. 연준은 그러나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내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의 '빅스텝'(한 번에 0.5%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준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목표치(2%)를 훨씬 넘고 있어 제약적인 정책 기조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위원회 의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지난달 FOMC 정례회의에서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대중이 위원회의 의지에 요구심을 품기 시작하면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이 위원회가 직면한 중대 위험"이라며 "위험이 현실화하면 물가상승률을 되돌리는 임무가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연준이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심리가 퍼지면 물가 잡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록은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라앉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데 동의했



다"고 설명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긴축 통화 정책이나 그에 따른 경제 활동의 둔화 속도보다 느리게 반응해, 한동안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긴축 통화 정책 효과가 서서히 반영돼 높은 물가 수준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다만 "누적된 통화정책 조정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일정 시점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긴축 통화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를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록은 "많은 참석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의 특성과 통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이 물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정책 스탠스를 취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 긴축 정책을 필요 이상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처음으로 과도한 금리 인상의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둔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의사록은 "투자자들이 해의 충격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 서프라이즈를 고려할 때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에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에너지 공급 중단,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통화 및 금융 상황 긴축 등으로 계속 역풍에 직면했다", "대부분 기업과 일부 가계에서는 긴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직원들은 공급망 병목 현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연초 이후 재정 상황 긴축 등을 지적하며 "위험이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고 판단했다. 의사록에는 "많은 참석자는 노동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악화할 것이라는 잠정적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대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자이언트스텝 대신 빅스텝으로 보폭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사록 공개 이후 시가총액 1조 달러(CME) 페드워치에서 9월 0.5% 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64.5%로 높아졌다.

러시아에서 뜨는 커피 '짜퉁' 스타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철수한 커피 체인점 스타스 커피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문을 열었다. 스타스 커피 로고는 스타벅스와 비슷해 짜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래퍼 티무르 유누소브와 레스토랑 경영자 안톤 핀스키는 스타스 커피 매장을 인수해 브랜드 이름을 바꾼 후 이날 재개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



다. 티마티와 핀스키는 올해 8~9월 사이 더 많은 스타스 커피 매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스타스 커피의 로고는 그리스 신화 속 요정 사이렌이 러시아 전통 머리 장식 코코시니크를 쓴 여성으로 대체됐다. 점은 제외하고는 스타벅스와 사실상 똑같다. 스타스 커피가 판매할 메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메뉴까지 비슷할 경우 짜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스타벅스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스타벅스는 올해 5월 러시아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떠나기 전까지 러시아에 매장 130개를 갖고 있었다. 서방의 대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이들과 유사한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문을 연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맥도날드도 5월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6월 러시아 업체가 맥도날드를 인수해 '브쿠스노 이 토치카'라는 이름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열었다. 브쿠스노 이 토치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맛있다'는 의미다. 서방 기업 다수는 러시아에서 푸틴 정권에 친화적인 사업가에게 샀으므로 자산을 넘기고 영업을 접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전쟁 발발 뒤 고립된 상황에서도 '서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인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북한과 외교적 준비돼 있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협상 초기부터 북한과의 자원 교환 프로그램 등 대북 제재 면제를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비핵화 실현에 작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루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그것은 양측이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점진적인 조치를 할 위치에서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의지를 나타내는 게 첫걸음"이라며 "여러 번 말해왔지만, 우린 북한과 직접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으나"는 추가 질문에 "그런 단계를 본 적이 없기에 가정적인 조치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응답할 필요가 있고, 우린 북한이 우리와 역내 조약 동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희망한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상호 조치를 통해 신뢰를 쌓으며 단계적인 해법을 찾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라는 점도 미국의 기존 입장이다. 앞서 윤 대



통령은 지난 15일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면서 특히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조치로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과 달리 실무 단계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상황시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가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이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 제재 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지적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유엔 관리가 말한 것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광범위하게 보자면, 우리의 제재 체제와 국제 제재 체제는 식량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재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프 라이스 대변인은 22일부터 시행되는 한미연합 연습 '울지 자유의 방패'(UFS-울지프리덤실드)에 대해서는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이나 도발로부터 공동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해당 훈련을 북침 전쟁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美, 우크라 곡물 15만 기근국에 지원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는 지금 1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국민 절반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티그라이 반군과 에티오피아 정부는 휴전했으니 기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도 내전으로 인해 지역 내 연료가 바다나 식량 배급도 원활하지 않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15만톤을 사들여 이들 기근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보고서에서 지난 3월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군과 휴전을 선언한 후 구호물자 전달이 재개됐음에도 영양 실조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티그라이 지역은 지난 2020년 11월 내전으로 사회 기반 서비스가 끊겼다. 외부와의 교류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물자 반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극심한 식량난이 벌어진 티그라이는 휴전 이전인 1월 원조가 심각하게 필요한 주민 비율이 37%에서 휴전 이후인 8월 47%로 오히려 급등했다. 주민 절반 가까이 단량 원조가 필요하지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WFP는 "올해 10월 추수 이전까지 기근이 정점에 다가서고 기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티그라이 지역 주민 중 임산부와 수유를 하는 여성의 절반, 5세 미만 어린이의 3명 중 한 명은 영양실조 상태를 겪고 있다. WFP는 이들이 사망과 발육부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WFP가 기아 위기에 몰린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국가에 곡물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2만3000t을 확보했으나, 미국은 6배 넘는 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미국이 수 주에 걸쳐 이 같은 곡물 물량을 사들여 곡물 수출이 막혔었던 흑해 항에서 선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 성경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Scripture)

복음을 알고, 영적 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에, "본성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권능이 잘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며,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더욱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오늘날 중지되었다."

본성 (자연)의 빛 (the light of nature 롬 2:14)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적인 돌보심 (롬 1:20)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일반계시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명제적으로 (propositionally) 계시하셨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말한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성경의 필요성은 1) 일반계시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활의 진리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2) 과거와 같은 특별계시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과 신앙생활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필요성의 교리가 생겼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을 주장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보다 상위에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The Church takes precedence over Scripture).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교회의 전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경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아

니하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책 (성경)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사도들에게 맡기셨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교황과 주교들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눅 10:16). 제자들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구절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 (로마교회)를 필요로 한다. 성경은 2 차적으로 중요하다 (1차적인 것은 교회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몬타누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제세레파와 같은 신

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명제적인 교리를 전제로 한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항상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인지적인 (cognitive) 요인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시면서 언제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여 언약의 문서로서 보존하시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언약의 문서인 성경을 잘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록된 말씀이 없

서 성경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활동과 생활 양식에 공동된 하나님의 예배,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들에 의해 규정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고, 종교 개혁 당시 제세레파의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성경의 직접 계시를 더욱 중요시하면서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아니한다.

대요리 문답 3문에는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의

explicitly or by implication) 금지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심을 가르쳐준다. 5) 성경의 충족성은 교리와 윤리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만족해야한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많은 궁금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시지 아니한 문제들을 상상하거나 꾸며내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지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명백하게 가르쳐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에 만족해야한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삶에 충분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많은 상식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은총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 점검이 되어져야한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을 이해하는 우리의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이다 (noetic effect of sin).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과 한자, 그리고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언어와 문법과 구문론들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논리학, 문학, 역사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모두 성경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의 교리를 근거로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문화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 시대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시장구조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결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동성애와 성전환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철저히 점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알아야 한다. 언제나 문화의 기초는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 성경으로 이 시대의 사상을 비판하고 바른 성경적인 세상 체계를 세워야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SNS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SNS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세계관들의 잘못을 알아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사상체계에 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식과 지혜가 됨을 전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신론, 神論, The Doctrine of God이 시작됩니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5)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비주의자들도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성경보다 성경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에 계시 (Direct revela-

으면 구원의 진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며,

유일한 규칙"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의 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tion) 하는 내적인 빛 (inner light)을 더욱 중요시했다.

또한 바르트주의자를 비롯한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명제적 (propositional) 진리보다는 "만남" (encounter)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늘날 영성 (spirituality)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헨리 나우엔의 <상처입은 치료사>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깊은 영성을 가지시고, 온갖 고난을 이겨내시어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예수님의 이러한 영성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의 명제적인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사실은 별로 강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말로하면 명제적인 진리 (propositional truth)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수님과 그의 만민의 사건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격과 속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도 성경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며,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해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 성경의 충족성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에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 분명히 가르친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새로운 계시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계시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양생활에서 교회의 전통이 모두 잘못되었고, 교회의 전통을 전부 거절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강조점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놓거나,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성경적으로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보존해야한다.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활에 관한 문제에 충분한 대답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그루넬 (Wayne Grudem)은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성경의 충족성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 큰 유익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1)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다. 2) 성경의 충족성은 우리가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으며, 어떤 문서라도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됨을 가르쳐준다. 3) 성경의 충족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믿도록 강요하지 아니하신다. 4)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에 분명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eith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갈보라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안인교회, 안디옥교회, 일리노이제자들교회, 앵커리지얼린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5)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2) 방법2: 죄의식, 죄의 위험, 죄의 사악함을 항상 인식하라

당신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것들에 대해 변함없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1) 죄의식

사람이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 정욕은 그 사람에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속인다. 이것은 나쁘지만 다른 악에 비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구실을 대도 록 한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속 여 올바른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죄는 요란한 광기를 일으키 며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올바른 사물판단 능력을 흐리게 한다.

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 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유혹 한다. 모든 정욕들은 발전해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든다. 한때 온유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 을 통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정욕으로 인해, 더 이상 설교 말 씀이나 질병 앞에서도 찢림을 받지 않고 완고해진다. 죄가 자 라나면 그 종착지는 죄, 율법, 천 국과 지옥 등에 대해서 거의 생 각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 는 것이다. 주의하라. 당신의 정 욱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심지어 정욕은 마음을 강박 케 하고, 양심을 마비시켜서 생 각을 어둡게 하고 감정과 영혼 을 속인다.

나) 죄의 위험은 죄가 이 세상 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 킨다는 데 있다. 이 징계를 성경 은 복수, 심판, 그리고 처벌이라

놀림거리가 될지 모른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간 마다 지옥과 분노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미워하 는지 깨닫게 하여 당신을 놀라 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당 신의 상처는 계속 흘러 마르지 않고 당신의 영혼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라) 죄는 사람을 영원히 파멸시 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과 파멸의 위험이 그들을 사 로잡게 된다(히 3:12; 10:38).

결국 하나님의 규칙은 이와 같 다. 즉,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을 통해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선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 기 때문에 그가 파멸할 때까지 계속 그에게서 분노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기의 욕

이지만 죄의 악은 현재와 관련 된 것이다. 정욕을 죽이지 못할 때 부수적으로 동반하는 많은 악들에 대해 살펴보자.

가) 죄는 성도의 마음에 거하도 록 보내진 성령을 근심케 한다. 부드러운 사람이 친구의 무례함 을 보고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은 죄의 정욕을 보면 근심하게 된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근심도 주 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근심시킨다면 정말 배은 망덕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을 항상 정결케 하고 모든 영역에 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속에 거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고 그들과 만나주시는 성령 때문 이다.

나)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악을 행

말씀 앞에 찢림이 없는 정욕에 주의하라! 순종을 갇아먹는 정욕을 버려라!

당혹스런 논리, 사람을 무력화 시키는 달콤한 약속, 혼란스럽게 하는 유망, 하나님의 자비에 대 한 지나친 신뢰, 잘못된 목적으 로 죄와 싸우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점점 더해 가는 정욕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뒤흐드는 것이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 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호 4:11). 여기서 마음이란 판단력, 지혜, 통찰력 등을 의미한다.

죄의 정욕의 힘은 중생하지 못 한 사람들에게 최고조에 달하지 만 부분적으로는 중생한 사람 들에게도 비슷하게 역사한다. 어리 석은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의 식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는 때 문에 그는 어리석다. 정욕은 사 랑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 한다. 확실히 죄를 죽이기 원하 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올바른 판단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죄의 위험들

가) 죄는 속임수를 통해서 우

고 말한다(시 89:30-33). 하나님 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경 한 죄로 인해 당신을 완전히 버 리지는 않지만, 그분의 막대기 를 통해 당신을 징계하신다. 하 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지만 당 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 시는 것이다.

다) 죄의 정욕의 위험은 사람 의 일상 동안 평화와 힘을 빼앗 아 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욕을 죽이지 못할 때, 그 정욕은 영혼 에게 평화와 힘을 빼앗는다.

조금 지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 있 다. 아마도 내일쯤이면 당신은 기쁨과 활기를 거의 잃은 채, 기 도, 성경 읽기, 설교 듣기 등과 같은 의무들을 억지로 수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에 당신의 삶은 고요한 평화를 전혀 맛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의 생애 동 안 당신의 빠른 고통과 두려움 으로 채워지게 될 수 있다. 확실히 하나님은 자신의 화살을 당 신에게 쏘아 고통과 불안, 두려 움 그리고 혼란을 만드실 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거리와

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 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

일반적으로 사람은 두 가지 측 면에서 스스로를 판단한다. 첫째 는 자신의 인격이고 둘째는 자 신의 행동 양식이다. 사람은 자 신의 인격에 대해 좋은 증거들 을 가지고 호의적인 판단을 내 릴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 은 자신의 사악한 행동 양식이 파멸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판 단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사악한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관심의 증거들을 내팽개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 은 자신의 사악한 행동 양식이 죽음을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판단을 통해 자극을 받고 죄 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실로 우리 영혼이 죄의 정욕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자 한다면 이 점을 숙고해야 한다.

(3) 죄의 사악함

죄의 위험은 미래에 속하는 것

이다.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새사람도 그 죄를 통해 상처를 입게 된다. 실로 죄는 그리스도 의 사랑의 힘을 빼앗고 대적자 인 사탄의 욕망을 채워준다. 죄 의 속임수를 통해 주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는 주님을 다 시 못 박는 행위와 같다.

다) 죄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유용성을 말살시킨다. 그래서 죄 의 지배 아래에 놓인 사람은 아무 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축 복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실 로 이 세상은 신앙을 공언하지 만 스스로를 괴멸시키는 불쌍한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 정말로 아름다운 영광의 빛 속으로 걸 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폐하 여 그 원의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 자신들의 영을 삼키는 정 욱들을 계속 품고 있다는 사실 이다. 이들의 정욕은 별레처럼 순종의 저변에 기생하여 매일매 일 순종을 갇아 먹는다. 그래서 은혜의 효력을 증진시키는 은혜 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손상 시킨다.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8)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뜻을 가진 동상 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재혼과 관련된 두 남녀에 대한 표현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카드가 나오면 내가 늘 생각해 왔던 일이 있어 한국부터 가보고요...” 한 여성분이 결혼을 통한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못 이루었던 일을 해보리 라 하면서 건넌 말입니다. 다른 분은 자유롭게 비행기 탈 수 있게 되면서 꼭 그려졌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겠지 만 남자분의 결정이 확대되어 비취진 건지 헤어지는 것 을 볼 수 있었구요.

이혼 여성들 중에 신체학대 등으로 헤어진 경우도 있 지만 이곳 이사회에서 볼 때 야심찬 여성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재혼을 원하는 남성들은, ‘일 갔다 와서 누군가와 밥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더 바 람 게 없다’는 소박한 소망을 말합니다. 신학교 때 논문 지도를 해주셨던 교수님께서 ‘반드시 싱글맘만이 아닌 싱글대디도 함께 사역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이유를 시간이 갈수록 알 듯합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 자로다’라는 구절이 랬트에 나온다고 하는데, ‘약한 자 여 그대 이름은 남자로다’가 더 적합한 표현이 되고 있 다고 할까요.

물론 여성들도 재혼의 실패로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대체로 남자들의 경우가 만만찮은 것을 봅니다. 한 남자 분이 물질에 집착이 큰 듯한 여성들과 재혼 그리고 세번 째 혼인을 했는데 두번 다 믿기 어려울 만큼 손실을 보 며 힘든 이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익숙한 것을 끌려 서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 는 아니었는지요. 여든 재혼의 꿈도 잠시 상처투성이로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막을 수 없었는가 안타까 움에 젖게 되지요.

그렇다면 수속없이 동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물음 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다 싶으면 그만두면 된다고 생 각할 때 편리하고, 또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은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집을 지는 것과 같지 않 을까요? 그런 집이 견고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듯이 그런 관계는 사소한 문제에도 금방 연을 끊을 수 있습니 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이 먹어 두 남녀가 함께 할 성공 률이 낮은 건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세 세상’에 노후를 계속 혼자 보내기 보다 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만나 알콩달콩 산다면 자식들 에게 또 주위 사람에게 귀해 보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 (디도 2:2-3)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절제, 자제, 인내 그 리고 거룩한 생활이 배우자를 새롭게 찾는 데 필요한 열 쇠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싱글 사역 인도자들이 힘닿는 대로, 그들로 신중에 신중을 거 쳐 결정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1)237-6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0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5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02)2-437-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양주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877-8383~9, Fax: (031)8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윤진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395, 39-349-329-1726 39-16-443-8870(로마인) VIA DEI QUINT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광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91~3, (02)2-2646-319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6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강경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seongsil.or.kr Tel: (02)2-308-2088, Fax: 30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3: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843-8553~4, Fax: 2646-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동3동 7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02)2-589-0191, Fax: (02)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모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시택: (01)388-2235 (110-230) 서울시 중구 구로동 137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원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2-842-1988, 시택: (011)822-2-842-198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주일6부예배: 오후 6:00 Tel: (02)419-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령로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kr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배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3142-8080, Fax: (0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cheon.org	신안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0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신성동 3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3)210-5500, Fax: (053)210-5510 (641-370) 강원 원주시 신성로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988-49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8)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8981, Fax: (02)942-69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정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장수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9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곡동 294-10(403-6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2-482-3536, Fax: (02)2-489-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9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목회서신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기도란 무엇인가?

누구나 기도하지만, 기도는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다. 기도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성령의 도움을 지속해서 받아야 한다. 기도를 미사여구로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영

혼의 진실함이다. 친밀한 부부나 연인들은 서로 바라만 보아도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간다. 깊어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잠념을 걷어내야 한다. 말씀 암송을 하거나 묵상을 하고, 또 조용히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몰입되어 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가 잘되지 않을 때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야 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도록 말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나에게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살통을 경험한다. 기도에서 누리는 최상의 특권 중 하나는 안식이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을 느낄 때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밀애다. 하나님에게 깊이 몰입될 때 찾아오는

평안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기도할 때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눈을 살펴서 감고, 가슴은 펴고 호흡을 길게 내쉬며 손바닥을 펴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 보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최상의 길은 기도다.

기도한다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한다. 종교적인 술어를 남발하거나 정형화된 언어들은 가끔씩 피해야 한다. 피상적인 언어들보다 담백하고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라. "하나님,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 보면 대부분 정직한 고백들이다. 자신의 감정 상태나 숨겨둔 생각들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깨어진 심령을 토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거짓 없이 아

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직 영적인 경험이 얕은 단계에서는 혼란과 어둠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내어 보일 때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 주신다.

기도에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은 나 중심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태도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강한 의지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는 기다림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다림은 어려운 일이다. 기다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가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영혼을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둘러싸고 있는 빛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빛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침투해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어떤 사물보다 더 가까이 실재하신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적인 훈련이나 노력보다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질 때 민감성이 높아진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영성에 조급함은 금물이다. 현재 자신의 위치와 영적인 상태에서 한 걸음씩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이다.

sychurch@gmail.com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3차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

"3만5천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알아야"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 네트워크선교대회(대회장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가 지난 15일(월)부터 19일(목)까지 휴스턴한빛교회(담임 정영락 목사)에서 개최됐다. 16일 집회에서는 대회에 참석한 탈북 신학생들이 오전과 저녁까지 모든 순서를 맡아 각각의 간증을 전하는 시간으로 할애됐다. 탈북 신학생들은 감신대, 침례신대, 서울신대, 총신대, 장신대 등에서 총 13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집회에서 간증을 전한 총신대 바울 전도사의 간증에서 바울 전도사는 "북한이 젊은 층들에게 어떠한 교육과정을 통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있고, 또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되는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착취하는 지에 대한 설명"과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으로 세뇌됐던 김일성 주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극적으로 받아들여 계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태어

나서 가장 처음 배운 말이 바로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였다"며 "유치원 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에 대한 미화된 영웅담을 배우고, 소학교에서는 김일성 부자의 혁명 활동을, 또 고등학교에 가서는 김일성 부자의 혁명 역사를 배웠고 전문학교부터는 김일성의 교시와 주체사상에 대해 착실히 배우면서 철저한 김일성 주의자이자 주체사상 신봉자로 자라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선군정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군인들은 굶주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고 특히 고난의 행군 당시의 군사적 질을 보내야했던 군인들은 쥘 뿌리와 풀을 먹으며 악착같이 버텨야 했다. 군대에서는 훈련뿐만 아니라 농사 및 어업과 벌목 등 온갖 일들을 해야 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말 사료를 먹기도 했다"며 "이런 힘든 북한의 상황에 대한 원망이 김일성 부자를 향하지 않고

철저히 세뇌된 대로 미국의 잘못된 여겼다. 군복무를 마치고 당을 믿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지만 배급은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배급이 있는 평양 또한 식구들이 버틸 수 없는 배급량으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자신이 그동안 북한에서 받아왔던 교육이 잘못됐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병든 세상이라고 배웠지만 전기불이 어디에도 다 들어오고 냉온수가 하루 종일 나오는 시설을 보고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됐고 인터넷과 신문 등으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또 현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과 비교하며 결국 북한당국이 자신들을 속여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바울 전도사는 "나 자신의 사명은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북한에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3만5천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현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온 세계에 다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북한은 못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바로 탈북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탈북자들도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탈북자들 중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그 땅의 우상을 향해 복음의 폭탄을 터트리자"고 강조했다.

이날 KAPC, 남침례교한인총회, 기감, 고신 등의 교단 관계자들이 인사하면서 북한선교를 위해 각 교단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달라스연합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및 임직감사예배에서 임직받은 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우측아래 타원은 창립56주년을 축하하는 계약커피를 하고있는 교회관계자들 모습

달라스연합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및 임직감사예배

"뜻뜻하고 순전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회복해야"

텍사스 주 최초 한인교회인 달라스연합교회(담임 이요한 목사)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및 임직감사예배가 14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요한 목사 사회로 열린 임직감사예배는 김주교 장로가 기도했으며 시온찬양대가 찬양했다. 이날 윤재철 목사(매릴랜드



제34회 해변문학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문협 해변문학제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송종록 목사) 주최 8월 해변문학제가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문기도원에서 열렸다. 이날 해변문학제는 송종록 회장이 인사말을 전

했으며 최학량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김복임, 문경구, 안정아, 윌리 권 시인들이 시낭송을 했으며 임영호 소설가가 특강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유니버시티 교회 담임/KPCA 수도노회 노회장)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4-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재철 목사는 "사랑은 힘이 있으며 신앙생활에도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신앙생활의 자유가 될 수도 노예의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뜻뜻하고 순전했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들의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요한 목사 집례로 시작된 임직식은 3명 장로 6명 권사, 6명 안수집사를 임직했다. 석근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장림장립, 권사임직, 안수집사 임직 순으로 진행됐으며 임직자 소개 및 임직자 및 교우서약, 안수, 악수례, 공포, 임직패 증정 순으로 이어졌다. 윤재철 목사가 축사 권면했으며 기영렬 목사(달라스교회 회장)가 영상으로 축사와 권면을 했으며 김홍교 장로가 답사했다. 김홍교 장로는 "함종직으로 세우시고 임직예식을 허락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더욱 더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윤재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이날 임직받은 자들이다. △장로: 김홍교, 석시호, 조성은, △권사: 강경민, 광부영, 김영옥, 박선미, 오기욱, 이기순, △안수집사: 강인철, 맹지민, 심재승, 이태시, 안병근, 엘리야 김 (박준호 기자)



넵시모어대학교 학위 수여 졸업식이 열렸다

넵시모어대학교 학위수여식 열어

넵시모어 대학교(아메리칸 웨스트 칼리지) 2022 학위수여식이 지난 7일 오후 7시에 열렸다. 홍영표 박사 사회로 열린 이

날 학위수여식은 피터 흥 목사가 기도했으며 비키 클러 박사가 미국국가를 불렀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4명 학사, 5명 목회

학 석사, 2명의 명예목회학 박사학위 수여자와 1명의 목회학 박사 수여자를 배출했다. 이어 세계총장 토마스 볼름필드 박사, 대학원장 앨버 마스터스 박사, 그릭 뉴욕지구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김희복 목사, 필라델피아 벨렐 신학대학, 벨렐장로교회 당회장 안재도 박사, 한국숭호대학교 정창태 총장과 캘리포니아와 주 하원의원 최석호 박사의 영상 축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총회장장과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님, 오렌지가 운터 한인 목사회 증경회장과 원로목사회 증경회장 목사들의 축사와 격려사, 권면이 있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탐 부름필드 박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심진구 목사)

2022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 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

2022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 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가 9월 13일 (화)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담임목사)와 9월 19일 (화) 워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호 박사의 영상 축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총회장장과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님, 오렌지가 운터 한인 목사회 증경회장과 원로목사회 증경회장 목사들의 축사와 격려사, 권면이 있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탐 부름필드 박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심진구 목사)

대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크리스천 교육 기관이다. 엔데믹 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세미나를 김은호 목사가 진행하고 주성하 목사의 다니엘기도회 사역, 경원훈 목사의 꿈이 있는 미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등록대상은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이며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미국 Conference' 신청하면 된다. (정리: 홍현숙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2022 뉴욕교회체육대회 개최

뉴욕교협과 뉴욕대한체육회의 공동주최로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체육대회"라는 주제로 교회연합체육대회를 Labor Day 인 9월 5일(화)에 엘리펀드공원(Alley Pond Park)에서 오전 9시에 개최한다. 경기종목은 배구, 족구, 육상 100미터 달리기이며 참여 교회 및 선수들은 뉴욕교협 혹은 뉴욕대한체육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뉴욕교협 718-279-1414, 631-327-8046, 뉴욕대한체육회 516-477-7695

필그림선교교회 애프터스쿨 오픈 (K-6th 대상)

필그림선교교회에서 지역 내 방과후 프로그램(K-6th 대상)을 9월 6일(화)부터 시작한다. 새롭게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비 \$50이며 수업비는 매월 첫째 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수업시간: 월-금(3:00-6:30 PM)
수업비: \$400 (1st child), \$360 (2nd child), \$320 (3rd child)
▲문의: pmc.afterschool@gmail.com

뉴저지교협 정기총회 9월 20일

뉴저지교협 정기총회가 9월 20일 뉴저지순복음교회(이정환 목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1013-Virgil Ave Ridgefield, NJ 07657

▲문의: 총무 김동권 목사 201-394-7821



뉴욕실버선교회 이사회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뉴욕실버선교회 20주년 앞두고 이사회 개최

신임이사장 이종식 목사 및 젊은 이사진 영입

뉴욕실버선교회는 8월 16일(화) 오전 11시에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새로운 이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를 추대했다.

이사장으로 추대된 이종식 목사는 "목회가 너무 바빠 새로운 역할을 맡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실버선교에 대한 김재열 목사의 설명을 들으며 교회에 있는 수백 명의 실버회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보였다"며 특히 "그동안 시니어들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15년 동안 이사장을 맡은 한재홍 목사에게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서기 이지용 목사, 감사 조철재 장로 등이 선출됐다. 18년 전에 뉴욕실버선교회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섬기고 있는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는 "5-6년 전부터 뉴욕실버선교회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교회건축 현안과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에 뉴욕실버선교회가 유명무실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새롭게 재정비하게

됐다"고 이번 변화의 취지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뉴욕실버선교회가 검증 받았고, 800명 이상 훈련을 받았으며 단기선교에 참가한 연인원 950명이라고 소개했다. 뉴욕실버선교회는 한국 시니어코리아 탄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실버선교회를 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시니어들은 노후가 있으며, 평생에 교회에서 성장하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소명과 훈련이라는 심지에 불을 붙이니 헌신하게 된다. 이런 분들이 이선으로 밀려나오면 낭비이다. 특히 뉴욕에 있는 분은 평생 선교문화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면 힘차게 사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이제한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훈련을 받은 케이스도 있다. 뉴욕에 특별히 선교훈련을 받을 곳이 없다. 실버미션만 아니라 젊은이미션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김동수 목사 출판 감사예배

"견인과 배교 어떻게 보아야 하나?"

지난 8월 20일(토) 오전 11시 뉴저지초대교회에서 김동수 목사(바울신학원 원장)의 영어 신간 "Perseverance and Apostasy in the New Testament: Unpacking the Dynamic of God's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의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는 사회혁신 목사(뉴저지열린문교회), 설교 이윤석 목사(브루클린제일교회), 축사 이병은 목사(KAPC 필라노회 노회장), 축도 조문휘 목사(KAPC 증경총회장)로 진행됐다. 또 영상으로 서평과 축사가 진행됐다. 서평은 샘 스톱 박사(오콜라호 마시티 브릿지웨이교회)와 정성욱 박사(덴버신학대학원)가 했다. 축사는 피터 릴백 박사 (

필라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와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했다. 김동수 목사의 저자 인사말도 진행됐다. 감사예배는 식사후 로비에 열렸다. 책은 아마존이나 반즈앤노블 등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아마존을 통해 킨들 버전은 4월에, 종이 책은 50월에 구입할 수 있다. 김동수 박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성경해석학으로 M.Div.와 Ph.D. 학위를 받았고, 나약칼리지에서 교수로 섬겼으며 현재는 2014년에 본인이 설립한 바울신학원 원장 외에도 필라대학교, 덴버신학교, 미드웨스턴신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김동수 목사 출판 감사예배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온라인 이단세미나를 강의 중인 탁지일 교수

뉴저지교협 온라인 이단 세미나

"코로나시대의 이단 트렌드... 하이브리드 이단"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은 8월 22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코로나시대의 이단 트렌드"라는 주제로 줌과 유튜브를 이용하여 온라인 이단사이비 세미나를 열었다. 강사는 한국에서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 교수, 일간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가 강의를 하고 질문도 받았다.

뉴저지교협은 세미나를 앞두고 "팬데믹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전도방법을 모색하듯이, 이단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전략을 세우고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극복하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뉴저지 교협에서는 온라인 이단사이비 세미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동부 지역의 교협들은 신천지와 신사도운동이 한인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2008년에 '미동부지역 교협협의회 이단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이단대처를 해왔다. 세미나는 이정환 목사(뉴저지교협 이단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근재 목사(부회장)가 인사 및 기도를 했다.

탁지일 교수는 세미나에서 "이단문제는 더 이상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이단에는 누구나 빠질 수 있다. 가해자가 이단에선 문제가 발생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가족을 둔 사람들이 반응은 의외이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감추면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문제는 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미혹의 기술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숨기지 않고 공개적인 노출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는 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더 전

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전후 이단들의 미혹의 특징을 소개하며 "요즘 이단들은 머리에 뿔을 달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친절하게 접근한다. 그리고 접근이 이루어지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치밀하고 치명적인 유혹이 시작된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혹은 이단에서 주는 거짓 평안을 통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족 학업 직업을 다 포기하게 된다. 이단들은 예수, 말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경계했다.

탁지일 교수는 팬데믹 후 이단들의 온라인 활동을 경계하며 "기성교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후에 온라인 비대면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한국 이단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비대면의 속한 시스템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자기세상을 만난 줄 안다. 온라인에는 이단 내용이 준비해 있다. 더구나 이단들의 영상은 고품질이다. 코로나를 통해 하이브리드 이단이 되었다. 기존 대면교에 더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경계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이 활성화되며 한인들의 많이 사는 지역이나 신사도운동의 경향성을 가지며 개인의 영적인 권위, 예언이나 치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교단에서 하는 이단규정은 시간이 걸려 이를 기다리면 피해자가 늘기에, 지역교협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회장 고한승 목사의 인사 후, 윤명호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청교도유적지 탐방으로 플리머스바위, 메이플라워호, 모세의 섬 등을 방문 예정이다

플리머스 청교도유적지 탐방 9월 참가자 모집

CBSN 뉴욕기독교방송 주최, 청교도신앙과 삶 도전받을 기회

모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플리머스 청교도유적지 탐방이 9월 26일(월)과 27일(화) 이틀간 보스턴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CBSN 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목사)이 주관하는 2022청교도유적지 탐방은 종교박해를 피해 신대륙 미국 청교도들의 초창기 역사를 중심으로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청교도 역사 전문가가 탐방일정 내내 함께 하며 청교도들의 순결한 신앙과 결단의 삶에 대해 감동을 더해 줄 예정이다.

탐방코스는 1620년 승객 102명을 태워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메이플라워호 견학을 비롯해 플리머스 바위와 청교도무덤, 보스턴 퀸시마켓, 로드아일랜드 다운타운 뉴포트, 바다를 낀 절벽 산책 코스, 모세의 섬 등 역사 속에 남겨진 청교도들의 흔적을 따라간다. 문석진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역사탐방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면서 "동행하는 청교도역사 전문가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지식도 많이 배울 기회"라고 밝혔다. 탐방경비는 1인당 350달러(2인1실 기준)로, 호텔 및 4번의 식사, 대형버스와 각종 팁 및 입장권 포함, 3-4인 가족일 경우 할인혜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문의: 정철호 여행사 영업장 718-354-5545, 718-414-4848

(정리: 김재상 기자)



제20회 정기지방회 후 사진촬영 했다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 제20회 정기지방회

제20회 교단총회 개최지 선정 수용 결의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 제20회 정기지방회가 8월 21일(주일)에 샘솟는교회(오명석 목사)에서 열렸다. 회무처리를 통해 미자립 5개 교회와 미육군 교단 군목 등에 총 3,000불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제20회 교단 총회 개최지로 동부지방회가 선정된 것을 수용하는 결의를 했다. 임원 선출을 통해 회장 오명석 목사(샘솟는교회), 부회장 서정학 목사(하회커뮤니티선교회)와 이수복 장로(샘솟는교회), 서기 신민규 목사

(맑은샘교회), 부서기 김성광 목사(샘솟는교회), 회계 이종식 목사(한길교회), 부회계 정해성 목사(CSO) 등을 선출했다.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사회 오명석 목사(부회장), 기도 이종식 목사(회계), 설교 장동신 목사(회장, 오늘의목양교회), 축도 전 회장 김완균 목사(솔즈베리 주찬양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동신 목사는 '옛것 같게 하옵소서'(애 5:21)라는 주제로 설교 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목회적 돌봄선교센터

~ 목회적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 (이하 목회선) 상담학과가 2022년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목회적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목회선은 교회가 유익함을 끼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돌봄을 통해 영혼의 사랑을 알게 하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일요일 저녁 심화반과 목요일 저녁반 그리고 토요일 오전반이 아예 드로와 같이 열립니다. 모든 수업은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합니다. 자세한 문의나 교육 신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개강일은 9월 8일 목요일 저녁 수업과 9월 10일 토요일 오전 수업은 공개 강연입니다. 연락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Zoom 아이디를 알려드립니다.

목회적 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포스터

목회적 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가을학기 개강

다양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 지식 교육 및 훈련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이하 목회선, 원장 구미리암 목사)가 2022년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목회선 돌봄 상담 전문프로그램은 교회가 믿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며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돌봄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면서 돌봄의 대상인 성도와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 지식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다. 원장 구미리암 목사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며 또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관계가 소원해지면 공동체의 응집력이 약해지게 된다.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에 대한 프로그램에 집중한다"고 소개했다. 월요일 저녁 심화반(9/12~12/12), 목요일 저녁반(9/8~12/8), 토요일 오전반(9/10~12/10) 등 3개 반이 진행된다. 목요일 저녁반과 토요일 오전반에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용능력

을 키우면서 관계를 회복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목회적 돌봄과 상담 개관", 그리고 존재감과 건강한 성격, 그리고 관계를 맺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자기성찰에 대한 지식과 훈련을 하는 "인간 이해와 돌봄", 그리고 돌봄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면서 돌봄의 대상인 성도와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 지식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다. 원장 구미리암 목사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며 또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관계가 소원해지면 공동체의 응집력이 약해지게 된다.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에 대한 프로그램에 집중한다"고 소개했다. 월요일 저녁 심화반(9/12~12/12), 목요일 저녁반(9/8~12/8), 토요일 오전반(9/10~12/10) 등 3개 반이 진행된다. 목요일 저녁반과 토요일 오전반에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용능력

(정리: 김재상 기자)

미주 한인 침례교 선교대회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잃어버린 영혼들'

미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가 주최하고 텍사스 북부 지방회(회장 유영근 목사)가 후원한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가 지난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함께, 열방을 향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고명진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수원중앙침례교회)와 IMB 폴 찰우드(Paul Chitwood) 총재, IMB 할 커닝햄(Hal Cunnyngnam) 부총재의 설교 및 선교사들의 세션별 선교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1845년 설립된 IMB는 미남침례교단 소속 5만여개의 교회들의 연합 선교 단체다. IMB는 지난 7월 말 기준 3천548명의 선교사를 116개 국가에 파송했다. IMB는 인류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연재해도 인도주의적 위기도 정치적 불안정도 아닌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말한다. IMB 폴 찰우드(Paul Chitwood) 총재는 "IMB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도 선교 헌금을 꾸준히 후원 받았고 선교사 후보자들의 지원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했다. 14일(주일) 오후 12시30분에



세미한교회에서 열린 미주 한인 침례교 선교대회 마지막 날 집회에서 폴 찰우드 IMB총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열린 3부 주일예배에서 찰우드 총재는 '세계 최대의 문제(롬 3: 10-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찰우드 총재는 "IMB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3천500여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 선교하고 있다"며 "선교사들은 교회 개혁과 교육 사역, 난민 사역 등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선교지에서 교육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고 30세 이하의 청년들이 2년간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직 선교사들, 은퇴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 어떤 직종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청중해 순종하길 권했다. 한편 선교대회 첫날 승 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중보기도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전한 데 이어 남아시아 선교의 선교 현황 및 미래 선교 전략을 강의했다. 같은 날 존 왕 선교사는 선교간증을 했으며 'IMB와 파트너 되기'를 세션 주제로 삼고 강의했다. 제이

리 선교사는 '카이로스적 기회를 맞이한 중동 무슬림 선교'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디아스포라 하나님, 에클레시아 하나님,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전했다. IMB 아시아 교회 돕는 사역을 하고 에스라 배 선교사는 '선교사 과업과 교회 동원 과업'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다니엘 워런 선교사는 '지역교회에서 해외선교 현장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끌면서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회 개혁과 제자훈련 등의 사역과 이를 통한 경험을 전했다. 첫날 저녁 집회는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는 '왜 성령으로 해야 하나(행 1:4-8)'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둘째날(13일)은 IMB 소속 8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세미나를 각각 진행했다. 토니 리 선교사는 지역교회에서 해외선교 현장으로(요 7:9, 마 28:18-20)'라는 주제로 허버트 홍 선교사는 '난민 선교 현황과 미래 선교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2022 부흥성회에서 배연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2022 부흥성회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매일 기도로 시작해야"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2022 부흥성회가 '복음 다시읽기'라는 주제로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배연택 목사(찰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유 목사(사화로 21일(주일) 오전 8시 열린 부흥성회 마지막 날 1부예배는 이성철 목사가 기도했으며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날 배연택 목사가 '복음을 살다(창 1:24-3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배연택 목사는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도 창조하셨다"며 "믿는 이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오늘이라는 날이 새날이 되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다. 윈 손의 시간이 주어질 때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이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지난 3년간 하나님의 윈손을 경험한 시간 속에 있었다"며 "윈손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른손의 시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더욱더 크게 쓰임 받는 시간이 될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제6회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음악회

명곡오페라아카데미(원장 에스터 진)가 주최한 제6회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음악회가 21일(주일) 오후 4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에스터 진 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명곡오페라 회원들과 열심을 다하여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오늘 음악회에 찾아오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안에서 행복한 시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터

진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날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었다. 에덴은 복음을 받은 이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을 외면했다. 이는 흠으로 창조된 사람이 흠을 더욱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한 것"이라며 "땅의 일부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첫째 원리이다. 그러면 세상은 다스릴 수 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창 1:28 믿고 고민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로 매일아침을 시작해야 한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될 때 진정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배연택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 창립기념 감사예배에서 벤추라 목회자 부부성가단이 찬양하고 있다

서부교계 기사판

차세대 지켜내기 긴급세미나

ReFounders United가 주최하는 차세대 지켜내기 긴급세미나 '혼란과 혼돈의 시대, 그 이유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27일(토)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부에나팍에 위치한 CGV극장 소스몰에서 열린다. 이날 마이클 심 박사, 김태오 목사, 김사라 사모, 제니 박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 문의: (213)500-5690

비즈니스선교를 위한 회계 및 세무, 퀵북(QuickBooks) 강좌 안내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사역을 위해 회계와 세무, 퀵북(QuickBooks) 강좌를 9월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12시까지 매주 토요일 15주에 걸쳐 Zoom과 교실 강의로 진행한다. 수강을 원하는 재학생뿐 아니라 청강 등록도 가능하며 청강은 150달러이다. 등록신청을 한 모든 학생들은 퀵북실무를 위한 책자와 교육용CD를 제공받게 된다. 강의를 맡은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총무처장과 교회행정 및 IT,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이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 문의: registrar@gm.edu, 714-525-0088 Ext 102

통근 통독 성경일독학교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이 주최하는 통근 통독 성경일독학교 2022년 하반기 미주 16주 세미나 과정이 개설된다. LA 28기(화 오전반)는 8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토 오전반)는 8월27일부터 12월10일까지, 그리고 OC 18기(수 오후반)는 8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목 오전반)은 8월25일부터 12월 8일 계속된다.

▲ 문의: (714)713-8833

한인가정상담소 행복도전 30일 챌린지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달을 기념해 오는 9월1일부터 한 달간 '행복도전 30일 챌린지 2기'를 진행한다. '행복도전 30일 챌린지'는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참여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되는 활동매일 5분간, 총 30일 참여하게 된다. 지난 4월 행복도전 1기에서는 총 80여명의 챌린저가 참여해 30일간의 행복도전을 함께 했다. '행복도전 30일 챌린지'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https://tinyurl.com/kfam30>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 문의: mlee@kfamla.org



유수연 거주 67지구 하원 출정식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수연 거주 67지구 하원의원 출정식

"저렴한 세금과 무너진 공교육회복에 힘쓸터"

유수연 거주 67지구 하원의원 후보의 11월8일에 치뤄질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출정식이 21일(주일) 오후 3시 아테시 아파에서 열렸다. 이날 유수연 후보(유성국 목사 사모)는 "오늘 모인 분들을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 외에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도 계시고 무당층도 계시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정부와 민주당 정책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모이게 된 것"이라 말했다. 유 후보는 "캘리포니아의 치솟는 물가로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음식, 가스 및 기타 기본비용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새크라멘토는 세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며 "하원의원에 당선된다면 저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저렴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교육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이 무너졌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44 번째로 나쁜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주전역의 많은 학생들은 졸업할 때 읽기, 쓰기 또는 기초 수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없는 일"이라며 "저는 모든 학생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좋은 직업을 얻거나 졸업할 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다. 따라서 저의 부모가 자녀가 다닐 학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모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수연 후보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정보 세리토스 시장, 토니리마 아테시 시의원, 브래드비치ABC 교육국 부국장들이 참여해 이날 참여한 주민들을 격려했으며 유 후보의 당선을 독려했다. 거주하원 67지구는 세리토스, 사이프러스, 아테시, 부에나파크, 라팔마, 플러튼, 웨스트 에너하임, 하와이언 가든스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구 유권자 중 아시아계 35%, 라티노 36%, 백인 20% 등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 43%, 공화당 26%, 무당파 30%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유수연 후보는 지난 6월9일에 실시된 예비 선거에서 40.29%를 득표해서 샤론 퀵 실바 현역 의원(민주당)에 이어 상대로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박준호 기자)



제6회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음악회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2022년 여름성령축제에서 최병락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2022 여름성령축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양손에 맡기시다!"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22 여름성령축제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히 4:16)'이라는 주제로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14일(주일) 오전 9시20분 웨키나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최영현 목사 사화로 시작된 예배는 신홍식 장로가 기도했으며 카리스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최병락 목사가 '하나님의 양손 안에 붙들린 인생'(벤전 5:6-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병락 목사는 "육중서신중 빌립보서가 있다.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13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울이 주안에서 빌립보서를 쓴 것"이라며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손 안에 있기에 주안에서 쓴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경 안에 있더라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염려가 와도 염려가 되지 않고 항상 기쁨 안에 있을

수 있다"며 "우리문제를 그분의 양손에 맡기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위해 오른손과 왼손을 사용하신다. 오른손은 그의 자녀를 살리고 도와주시고 건지시고 일으켜주시 때 사용하신다. 반면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실 때 왼손을 내밀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윈손에 놓여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 긴시간, 그리고 광야같은시간이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 내가 여물어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지게 되며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다. 윈 손의 시간이 주어질 때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이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지난 3년간 하나님의 윈손을 경험한 시간 속에 있었다"며 "윈손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른손의 시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더욱더 크게 쓰임 받는 시간이 될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지난 40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담임 남재현 목사) 창립 40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14일(주일)오후 4시 남재현 목사의 사회로 드려졌다. 본 감사예배는 이상영 목사(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의 기도, 정영희 목사(드림연합감리교회)의 설교, 벤추라지역 목사부부 찬양대의 봉헌찬송, 조건갑 목사(본 교회 2대)의 격려사, 조승내 장로에 대한 감사패 증정, 구진모 목사(일서연합감리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

되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이날 남재현 담임목사는 "우리교회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40년이였다. 교회를 섬겨온 전임 목회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창립기념예배에 참석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0년을 한결 같이 우리교회를 섬기며 충성해 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국선교신학회 30주년 기념대회

“급변하는 현장에서 선교로 하나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앞에서 교단 구분은 무의미하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집례교 등 교파를 초월해 특별히 하나가 돼야 선교신학도 발전할 수 있다. 가장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신학 응용 분야로 꼽히는 선교신학, 이를 전공한 국내 중진과 신진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0년을 돌아보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선교신학회(회장 김현진) 평택대 교수는 지난 19~20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한국선교신학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3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은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로 시작하는 찬송가 505장으로 개회 예배를 시작했다. 대전신대 총장을 역임한 황순환 청주 서원경교회 목사가 ‘생명나무 아래서 노는 사람들’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부흥회를 떠올리게 하는 열정적 설교가 이어졌다.

선교신학자 출신인 황 목사는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학자도 지식나무가 아닌 생명나무 아래 머물며 생명의 충만함이

살아있는 전도자가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원경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예배를 해외 각지의 선교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비전을 함께 나누고 1004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천사선교예배’로 드리고 있다.

예배 직후 앞으로의 30년을 전망하는 미셔널 토크가 이어졌다. 3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장 맡은 전석재 서울기독대 교수의 사회로 김은수 전주대 교수와 손운탁 남대문교회 목사가 먼저 과거를 돌아봤다. 손 목사는 “과거엔 선교신학 전공자가 적어 여관방 하나에 모여 학술지를 검토하고 했는데 이제 300명까지 정회원이 늘어나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술지 ‘선교신학’이 한국신약학회와 더불어 한반 앞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가 됐을 당시 무척 기뻐했다”고 말했다. 선교신학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발간되며 권마다 10편 안팎의 논문을 선보이는 등 우수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차기 선교신학회장인 유근재 주안대학원대 교수는 “선교신학회는 급변하는 현장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기존 교회와 대학을 넘어 회사나 기업의 일



터 현장과 접목하는 선교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학자로 무대에 오른 반광준 박사는 “청년세대 선교를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이들은 일명 ‘지옥고’ 즉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머물며 알바 등 생계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올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 박사는 “하나님의 임재는 늘 중심부보다 주변부에 있었다”면서 “‘인싸(인사이다)’ 중심의 교회가 ‘아싸(아웃사이다)’ 중심의 교회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리에서 연대하는 사역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회에선 최근 4년 임기의 세계선교학회 회장에 오른 박보경 장신대 교수의 사회로 30주년을 회고하는 기념 공연이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이튿날 서귀포 이도종 목사 순교교회 대성교회 한림교회 금성교회 등을 돌아보는 순례 일정을 소화했다.

백석 “역사에 획 긋는 45주년”

45주년 앞두고 17개 본부별 기념사업 공유

내년에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이하게 될 예정 백석총회가 최근 45주년 기념사업 세부일정을 확정하며 “역사에 획을 긋는 45주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는 서울 방배동 백석예술대에서 17개 영역별 기념사업 본부장들과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교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17개 본부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이 준비돼온 가운데, 최근 관련 세부 일정까지 확정되면서 기념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45주년 기념사업은 내년 1월 2~4일 ‘목회자영성대회’를 시작으로, 3월 13일 ‘백석인의 날’, 4월 14일 ‘역사관 개관’, 5

월 ‘백석인 한마당’과 ‘개혁주의생명신학국제포럼’, 7월 ‘백석문화예술제’와 ‘45주년 기념교회 건립’ 등 다채롭게 전개된다.

또 ‘역사편찬’, ‘45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45주년 논문집 출간’, ‘기념선교대회’, ‘기도성령운동 전개’, ‘글로벌인재 양성’, ‘1만 교회 운동’, ‘백석문화예술제’, ‘다음세대 사역’ 등도 전개된 후 9월 9일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준비위원장인 양병희 목사(영안교회)는 “45주년 기념사업을 역사적 분기점으로 삼고,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며 “특히 백석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 총회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를 맡은 장종현 총회장은 45주년 기념사업이 나갈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역사의 획을 긋는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첫째 백석에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하고, 둘째 한국교회의 영적 주도권을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하며, 셋째 총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역전의 용사’ 들이 뭉쳤다

대한민국기독교원로의회 창립예배·포럼

‘역전의 용사’들이 뭉쳤다. 갈등과 반목, 대립과 평가르기가 난무하는 세파 속에서 잠자코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젊음의 열정과 패기도 중요하지만 백발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 주인공들은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 수장 등을 역임한 60~80대 교계 원로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기독교원로의회(기독원로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예배 및 포럼을 열고 헌신을 다짐했다. 행사장에는 전·현직 교계 인사들과 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독원로회 주요 참여 인사들은 올해 1930년대생 목사(김동권 김명혁 김상복 김진호 나겸일 송용필 최건호 최복규)들과 1940년대생 목사(김선규 박종화 이성희 이용호 이정희 전병금 최홍준) 등이다. 아울러 은퇴 이전인 1950년대생 목회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이른바 ‘삼겹살(30년대·40년대·50년대생) 신앙’ 모임으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최고령은 예상통합 전 총회장인 립인식(98) 목사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기하성 총회장을 지낸 박정근(90) 목사가 눈길을 끌었다.

예장합신 총회장을 지낸 김

명혁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도 삼십을 받으려 오신게 아니라 삼기러 오셨다”면서 “우리 원로들도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어가자”고 권면했다. 예상통합 총회장을 지낸 채영남(분향교회)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수많은 정책과 노력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갈등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원로회는 오는 10월 첫째 주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교회·선교·사회·운영 등 4개 분야에 총 28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기독원로회 실무총지기인 허문영 장로는 “이들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과 제안은 주요 교단과 지역기독교총연합회, 선교 단체의 헌신과 협력으로 개 교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며 지역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풀뿌리 복음 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부 순서에서는 ‘갈등을 넘어 해피 코리아’를 주제로 한 포럼도 이어졌다. “한국 기



독교는 그 스스로도 갈등과 대립, 분열에 있어서 첨예한 과오의 전통을 지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협력과 연대, 일치,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남다른 유산과 전통도 지니고 있다”(서정민 일본 명치학원대 교수) “참다운 살림(평화)은 목표를 정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 가운데에서 살림을 이뤄나가는 화해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노영상 전 호남신대 총장)는 등의 평가와 제안이 이어졌다.

기독원로회 실무 모임이로 참여하는 김상복(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는 총평을 통해 “교단이나 선교단체, 교회나 신학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힘써 지켜나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엡 4:3)”고 강조했다.

제1회 웨슬리언 지도자 컨퍼런스 개최

“성령의 시대...한국에도 웨슬리 신앙 흐름 이어질 것”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한국의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웨슬리 운동의 연합과 일치를 다짐했다. 성령·성결(성화) 운동 확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웨협·대표회장 박동찬 목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제1회 한국 웨슬리언 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독교대한국제학술대회(기과)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나사렛성결교회(나성), 구세군 대한본영 등 웨슬리언 신앙을 추구하는 국내 6개 교단 소속 전·현직 교단장 및 소속 신학대 총장 등이다.

웨협 대표회장인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목사는 “내년은 한국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면서 빌리 그레이엄의 서울 전도

대회 50주년, 감리교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웨협도 한국교회의 웨슬리 운동을 되돌아보고 한국교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웨협은 내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웨협 창립 20주년 기념 제5차 세계 웨슬리언국제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다. 양기성 웨협 사무총장은 “웨슬리언 신앙과 신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와 목회자들을 초청해 엔데믹 시대의 웨슬리 운동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협 명예 대표회장인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1부 예배 설교에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한 웨슬리언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 웨슬리언 운동이 한국교회에도 꿈과 희망을 주는 신앙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목사는 이어 “한국의 400만 웨슬리언 성도들이 영적 부흥과 함께 아름다운 섬김의 전통을 이어가자”면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화에도 열심을 내자”고 권면했다.

참석자들은 ‘웨슬리 신앙을 계승한 지도자로서 헌신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신대 명예총장인 조종남 목사와 구세군 사령관인 장만희 사관, 이후정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1부 예배 설교에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한 웨슬리언 교회들이 부흥을

유스비전캠프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역사를 쓰자’

놀이 하나 없이 오직 예배만 있는 캠프가 부흥을?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가 예배 중심의 캠프를 통해 다음세대를 위한 부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만드는 유스비전을 적극 추천합니다.”

올해 ‘유스비전캠프’가 지난 8월 4일~6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48개 교회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역사를 쓰자’란 주제로 열린 유스비전캠프는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이 캠프는 여타의 교회 수련회와는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

우선 캠프의 주체가 대형 교회나 단체가 아니다.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교회가 주최를 하고, 초교파로 전국 교회를 초청해 부흥을 주도하고 있다.

캠프를 주최한 장용성 주님이꿈꾸신교회 담임목사는

“2009년 주님이꿈꾸신교회를 개척한 후 8개월 만에 1200명이 참석하는 캠프를 열게 됐다”며 “대형 교회도 잘 할 수 없는 일을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교회들에 심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캠프 진행 방식이 남다르다. 일반적인 교회 수련회에는 단순히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유스비전캠프는 2박 3일 내내 말씀과 찬양, 기도만 진행되는 예배캠프를 지향한다.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 다음세대를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살려야 한다는 장목사의 목회관에 기인한 것이다.

예배만이 있는 캠프. 자칫 재미 없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시종일관 진실된 예배 중심의 캠프가

진행되다 보니 참가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후 7시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저녁예배가 백미인데 이를 접한 어린이, 청소년은 예배를 한번 더 하자며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늘푸른교회의 최요한 학생은 “9년째 참여하는데 어린이들까지도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고 감동을 받았다”며 “이 캠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탄제자교회 전병준 어린이는 “4년째 참여하고 있다. 장용성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았고 학교에 가서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캠프에서 은혜를 받은 아이들, 청소년들은 다음 수련회 때도 반드시 참석하고, 1명 이상 다른 친구를 전도해 데려온다. 이에 따라 유스비전캠프의 규모는 해마다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창 (20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팀 사역을 통한 선교 도전

21세기 한인 세계선교의 좌표(座標)는 어디인가? 우리 선교는 지금 피선교지 국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감사하기는 커녕 냉소적인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몇몇 선교지에서는 사역 한계인 임계점(臨界點, Critical point)에 도달해 있다. 이제 한인 선교사가 추방되는 일은 창의적 접근 지역을 떠나 지구촌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불행이다. 선교사가 청춘을 바치고 수많은 기도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현지 나라에서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좀 더 냉철히 앞뒤를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탁월한 선교 전략가인 고(故) 조동진 목사의 지적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는 “한인 세계선교의 치명적 약점은 감상적 선교 시각과 더불어 팀 사역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COVID19로 인하여 선교환경이 통째로 변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킹덤 관점에서 바라보며 100개의 텐트보다 1개의 대형 빌딩을 짓는 것이다.

1. 선교지에서 팀 사역의 실상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개성이 강하다. 그래서 꼬리보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며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들은 연합하여 1개의 빌딩을 세우기보다 각각 100 개의 자기 텐트를 선호한다. 이는 부담이 덜하고 신속하게 세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데 피선교지에 요구되는 것은 100개의 텐트가 아니다. 빌딩처럼 1개라도 제대로 된 작품 같은 사역이다. 텐트는 오래갈 수가 없다. 바람만 세계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텐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1개의 빌딩이 의미하는 것은 팀 사역이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만리장성을 쌓을 수 없다. 사역에서 홀로 서기란 위험하다. 성경적이지도 않다. 효율성도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할 길이 없다. 비록 팀 사역이 간단치는 않지만 그래도 독립 사역의 약점을 상당수 커버할 수 있다.

2. 성경에 나타난 팀 사역

의 본

팀 사역에 대한 최고의 본은 성경이다. 먼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란 3 위격으로서 팀워크로 존재한다. 예수님께

서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 그들은 사역에 도움이 되기보다 때로는 걸림돌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시며 긴 안목으로 선교 공동체를 이루셨다. 결국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선교의 유업을 잇게 하셨다. 바울도 확실한 팀 사역자였다. 그의 행적을 보면 홀로 움직이는 때가 없었다. 디모데, 마가, 누가의 여러 일꾼들이 항상 그 주위에 있었다. 로마서 16장에는 그와 동역했던 많은 일꾼들이 언급되고 있다. 구약에서 팀 사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온다.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 가운데 기도로 승부했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아말렉 군과 싸웠다. 이처럼 선교에서 팀워크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는 것이다.

3. 팀 사역에 관한 사회적 비유

시대의 전쟁사를 보면 흥미롭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산업혁명이 있기 전만 해도 인간은 힘과 무예가 뛰어난 용장을 의존했다. 삼국지에서 보듯 이들 장부들은 일개 사단 병력 이상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현대는 아무리 람보같이 신출귀몰한 자가 있다 해도 총한방이면 끝난다. 지금의 전쟁은 전, 후방이 없다. 땅, 바다, 하늘에서 글로벌한 입체 작전을 전개한다. 세상 전쟁도 이러한시대 하물며 영적 전쟁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1992년 선교한국에 주 강사로 섬겼던 고(故) Thomas Wang 목사님이 명쾌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누가 이 사역에서 중심이 될 것인가? (Who is a center in our ministry)”에 대한 헤게모니(hegemony)패권(覇權)적 싸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왕 목사는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이 사탄에 이용되어 왔으며 힘을 소진했는지 탄식해야 한다고 외쳤다. 맞는 말이다. 사실 여러 단체들과 교단 총회를 들여다보면 누가 크며 중심이 되느냐에 대한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쟁은 함께 팀워크로 힘을 발휘 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지배 논리이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인간의 약점을 꿰뚫고 있다. 이에 우

와 교단별로 하되 나아가 그 울타리 밖에서도 대연합적인 사역을 펼쳐야 한다. 더 이상 독불장군이요, 각계전투식 사역이 발을 못 붙이도록 정책적 입안을 해야 한다. 이는 각 사람의 개성이 죽은 용광로(Melting Pot) 같은 성격이 아니라 샐러드 그릇(Salad bowl) 같은 연합을 말한다. 셋째는 한 빌딩을 세우는 것이다. 각 나라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 이든 아니면 하드웨어(hardware) 이든 사역적 힘을 분산하지 말고 모아야 한다. 한인 선교의 랜드마크(Landmark)적 뚝방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신학교들은 그 성격과 지향점에 따라 100년 대계를 내다보며 과감하게 합병해야 한다.

맺음말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는 시온 성을 쌓으라! 이것이 21세기의 시대 논리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1인 다역(多役)보다 1인 1역으로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되어 팀 사역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간 우리의 관행처럼 저마다 자기 킹덤을 세우려 할 때 한국 선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님의 왕국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이에 사역자는 종말론적 시각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은사와 준비됨에 맞게 역할을 하면 된다. 보험의 원리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돕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도하면 된다. 먼저 선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현지인과 함께 팀 사역을 이루며 나아가 타 기관 선교사들과 가능한 선에서 연합을 시도해 가는 것이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 현장의 중심이 되면 모든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의 100보 보다 100 사람의 한보가 낫다”는 속담을 그저 흘리지 말아야 한다.

jrson007@hanmail.net

피선교지에는 100개의 텐트보다 1개 빌딩을 필요로 한다.
텐트는 바람에도 날아가기 쉬우나 빌딩은 100년을 버틸 수 있다.
빌딩이란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로 이루어진 연합적 과업을 의미한다.

시작부터 시, 공간을 뛰어넘어 왔다. 더욱이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의 선교지가 되었다. 이제 각계전투 양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오늘의 선교는 오케스트라, 축구팀, 그리고 군대의 작전과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홀로 중흥무진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팀워크를 이룬다는 것이다.

4. 팀 사역을 이루지 못한 주된 원인

사실 사역에 있어 팀 사역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현대 이를 잘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리는 더 이상 어둠에 세력에 돌아서는 아니 된다.

5. 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첫째는 하나님의 킹덤 시각이다.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 역사가들에 의해 각 나라에서 행해졌던 한인선교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역에 임해야 한다. 역사는 냉엄하다. 선교 대중화 시대인 지금은 분명코 개인보다는 “한인선교”라는 집단적 판단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찬사(讚辭)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의 족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둘째는 철저한 팀 사역이다. 이는 파송 단체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2강 / 절기, 안식년 그리고 두 길(레 23-27장)

절기, 안식년 그리고 두 길

모든 절기는 ‘여호와와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규례대로 드려야 합니다(레 23:37).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와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 풍요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광야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이방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많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형식과 방법’, ‘생활법’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레 23:1,2).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있는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날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아직 사건이 생기기 전에 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절기’를 정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이며 백성들이 그 절기들을 지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강조하지만 성막

이니라’(골 2:16,17)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절기들에 앞서 먼저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출 16:29)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10/ 레 23:3/ 신 5:14)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으로(출 31:13,17)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출 31:16).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일 것이고 그 날에 일하는 자도 모두 그 백성 중

했습니다(마 12:8/ 눅 6:5).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마 12:12/ 막 3:1-6/ 눅 6:6-11).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하는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양력으로는 4월의 봄 절기로 1월 14일 날에 지켜졌습니다(레 23:5).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대로 양이든 염소든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을 10일에 취하고 14일에 회중이 그 양을

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출 12:12).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살아날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준비되어 죽은 그 어린 양의 ‘피’ 뿐입니다(출 12:13). 애굽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이 피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자 때가 가까워짐을 아셨고(요 13:1-3) 유월절 양과 같이(출 12:6) 대속의 제물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요 1:29/ 고전 5:7).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흠 없는 초태생이셨듯이(출 12:3-5) 흠 없는(벧전 1:19/ 히 4:15) 만아들이십니다(롬 8:29/ 고전 15:22-24). 유월절 어린 양을 해 질 때 잡았는데(출 12:6)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때 3시경에 유월절 양을 잡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때 돌아가셨습니다(마 27:45-50/ 막 15:33,34/ 눅 23:44-46). 유월절 어린 양에서 중요한 것은 그 ‘피’이듯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롬 5:9/ 히 9:22/ 벧전 1:19).

hfamlyfa@gmail.com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으로 영원한 언약

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듯이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안의 절기는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지루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일 뿐입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

의 안식일이라’(레 23:3)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한주에 하루를 하나님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레 19:3,30, 23:32, 26:2/ 신 5:12,15).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창 2:2,3/ 출 20:11). 그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길

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출 31:14,15, 35:2/ 민 15:32-36).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일을 하므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레 24:8,9) 대체 사장이신 예수님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권위가 있으며(마 12:6)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음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출 12:3-7). 그리고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반드시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급히 먹되 애굽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출 12:46/ 민 9:12/ 시 34:20) 남은 것은 불에 살랐습니다(출 12:8-11). 하나님은 애굽 땅을 두루 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계 14:9-11) 찬 453장

셋째 천사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첫째,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골라 심판하게 합니다. (9)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가진 자란 불행자를 가리키며 어린양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참 회개와 믿음으로 어린양께 속한 자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둘째, 그들은 진노를 받습니다. (10) 어린양의 백성은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나 그

를 떠난 자들은 진노의 잔을 받되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 불과 유황의 고난 곧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셋째,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습니다. 11절에 그 형벌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절대성을 가집니다.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세워질 줄 아는 우리는 지옥같은 세상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화 성도의 인내 (계 14:12) 찬 202장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 속에서도 성도만은 반드시 이기며 어린양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누구입니까? 첫째, 그들은 인내로 표현된 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 걸맞지 않거나 참사랑을 받아 거역하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롬 5:5) 사랑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고전 13:7)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 나타나기에 성도는 그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이고 목적이요 만족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날에는 이것이 유일한 방패입니다. 셋째, 그는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킵니다. 구원의 중보자이며 영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앙은 그 날에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성도로 살다가 죽읍시다.

수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 (계 14:13) 찬 456장

종말 계시인 완성된 구속은 죽음을 포함시키니다. 주 안에 죽은 자에게 어떤 약속이 따릅니까? 첫째,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언약의 신실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혜사의 위리가 영원히 따를 자는 진정 복됩니다. 둘째, 영원한 안식이 따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안식은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원한 안식은 바로 성도가 천당에서 누릴 기본 복입니다. 셋째, 또한 삼급이 따릅니다. 구원도 감사한데 모두 수고마다 삼급이 따르니 진정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의이시며 신실하십니다.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주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는 살길이 생깁니다. (요 15:5) 그래서 주를 위해 죽어도 복되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목 인자같은 이 (계 14:14) 찬 94장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상징된 구름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스데반 순교 때에 (행 7:55),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도 (계 1:13) 나타나신 그분 곧, 다니엘 7:13절에 예언된 인자의 성취입니다. 구속의 마지막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구름 위에 앉으신 모습 - 위급할 때 신 인자는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의 다스림으로써 성도는 큰 환난의 때에도 그 안에서 넉넉한 승리를 누립니다. 둘째, 금 면류관을 쓰시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심을 강조합니다. (계 6:1-2) 셋째, 그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인자는 자신의 구원을 한치의 실수 없이 이루시는 지혜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가장 큰 부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요 10:10)

금 구원의 추수 (계 14:15-16) 찬 205장

그 인자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첫째, 성전에서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5) 성전의 실제 이신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성부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주권신앙을 파수함이 중요합니다. 둘째, 익은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15) 추수로 비유된 구원의 대상은 모든 것이 완전해진 익은 곡식이여야 합니다. 이 완전한 곡식은 정의와 성화의 과정을 걸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자란 아무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임하십니다. (16) 인자께서 곡식을 익게 하고 거두는 일까지 개별적으로 완전히 다루시는 오직 그의 신실하신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구원 역사에 우리가 포함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토 마지막 천사의 심판 (계 14:17-20) 찬 295장

그다음, 의의 심판은 다른 부류 곧, 불행자들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마쳐질까? 첫째, 동일한 심판의 기준을 따릅니다. (17)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불행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예리한 낫을 휘둘러 거두었습니다. 익은 포도로 비유된 악인의 심판도 인자의 의가 기준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18-19) 악으로 채워진 불행자들이 즉각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짐은 아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수순입니다. (롬

1:18-19) 구원과 대조되는 심판이 철저히 그의 의를 따르는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진노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정말 신실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세상에 그 심판이 반드시 알려집니다. (20) 온 세상이 피로 범벅이 되는 모습은 마지막 때에 최악의 심판 현장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인자의 진노에서 벗어난 성도는 진정 복됩니다. 문이 닫히기 전, 열심히 이 의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십시오.

기독교교육 (11)

기독교교육의 필요성(5)

기독교교육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상황과 추세가 기독교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 속에서 익사할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컴퓨터,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변화가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6천 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고, 세계적으로 매년 130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천 개의 인공위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인터넷(International Network)은 1960년대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용 통신망으로 시작되었는데, 1973년에 그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146개국 5천여 통신망과 9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79억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45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기가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66억 개의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손바닥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GPS 기능으로 인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지역을 찾아가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와 음악의 스트리밍으로 언제나 오락을 즐기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과 체온, 심장박동, 혈압 등을 측정하여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기술의 발달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처지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문사와 잡지사사 출판사 같은 기존 산업이 심한 타격을 입습니다. 휴대전화기만 들여다 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결과, 고립된 생활을 하며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근육과 시력이 약화하고 거북목이 되는 등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왕따나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포르노를 쉽게 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포르노로 인해 인신매매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열대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질병들이 양극 쪽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화학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고 있고, 인구증가, 농업활동, 가뭄 등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제화나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줄어들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수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덕도 변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기준을 거부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LGBTQ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권장하는 듯한 사람들과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정보 얻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백과사전이 필요 없고 암기가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사고와 문제가 폭증하는 것을 보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보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과 삶을 잘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교육은 불신자들과 새신자들과 성장하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지혜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잠 9:10; 시 110:10).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약 1:5).

기독교교육은 또한 참석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 속에 있는 관계성을 깨닫게 하고 인간 속에 반영된 하나님의 관계성을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가상공간에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느라 실제 삶 가운데서 고립되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변화 가운데 질식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서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황과 추세를 볼 때 기독교교육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기독교교육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요일 아침의 주일학교와 일요일 오후의 제자훈련 등 제한된 방법으로 교인들을 교육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요즘은 요일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을 도입해야 하며, 소그룹과 개인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기독교교육은 교회에 새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성경 문맹인 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추세를 볼 때, 그들에게서 신학이나 교회 생활에 대한 기존 지식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한 이해가 매우 적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울리는 언어와 행동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교육의 현장은 교육의 장 보다는 선교지와 더 비슷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공황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을 지혜와 관계와 힘으로 인도하는 기독교교육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역입니다. 기독교교육이 세상의 상황과 추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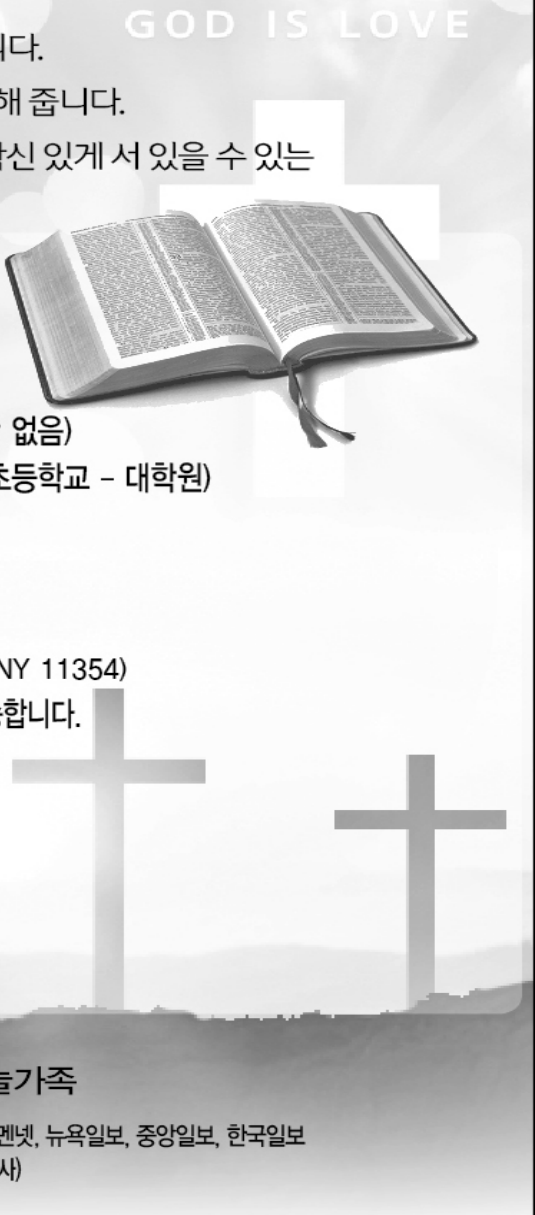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하늘가족

광고후원: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뉴저지평화기독교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인하사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선교 펴기 독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히 11:12)

1. 모친의 항암치료

주님의 보호와 사랑과 수많은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었던 눈물의 8개월. 항암제를 옮기는 간호사의 이동카트에 쓰인 글자 poison 독을 보며 엄마 몸에 독이 들어가는구나, 수술 직후 항암치료의 각종 부작용은 어떡하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출근하듯 다니며 지치고 막막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엄마와 손뼉을 치며 기쁘게 찬송가를 부르던 시간들, 무늬만 신자였던 엄마가 성경책을 펴시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중보 기도해주신 분들을 위해 중보 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내편이 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니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항암치료를 마치자마자 엄마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 너무나 낙심이 되었는데,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되돌려주리라"(대하 7:13-14). 막상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 나의 수술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되자마자 5월에 오랜 치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회복되리라 여긴 수술이 새벽에 응급실에 가야만 했었고, 병원의 미흡한 가이드로 2

주간 걷지도 앉지도 못하며 화장실을 수백 번 들락거리며 낄뻘을 새웠고, 말세에 핍박과 환란이 오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고생으로 수척해지신 부모님, 병원에서 시도한 관장이 잘 안 돼서 절망과 눈물로 범벅된 나. 귀가 길에 어렵게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뜻밖에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엄마 무릎에 누워 있는 저를 보시고 택시 안에서 부흥회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자원이 있지 않은가,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야, 매일 아침 그저 나를 주님께 드리웁니다 기도한다. 주님께 물고 꼭 평안 가운데 사역하라 등 심금을 울리는 말씀과 기도 에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마치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같이 생각되었습니다. 1개월 만에 밖에 나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7월 초에 독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삶과 사역의 전환기: 영적 갱신(Renewal)과 배움

한국에서 일정이 느닷없이 길어지며, 이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회의가 들었고, 삶과 사역에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몇몇 줌 강의와 배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생 주기 리더십 클리닉, 성경 연장 학습, 전도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임라인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조망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장보다 성숙에 초점을 맞출 것과, 새로운 필드 유럽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견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이루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앞으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4. 독일의 영혼들

그동안 다니엘 선교사는

2세 독어 예배 공동체의 책임을 그만두고, 근육감소증으로 엄마를 잃은, 동일한 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초등학생의 학업을 돕는 일을 시작으로 독일학교의 교사들과 부모들과 새로운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황체어를 탄 막스는 냉소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다니엘 선교사의 돌봄과 관심으로 밝게 변화된 모습에 교사 중 어떤 이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또한 학생 아버지는 하나님의 존재인 믿는다고, 이 가정의 구원이 많은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된 전도팀. 아프리카 4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독일에서 취직 및 정착 후, 매달 도시를 정해 노방전도 투어를 하는데 브라질과 터키 사람까지 다민족 전도팀입니다. 이들의 이틀간 노방 찬양과 기도 사역으로 두 명의 독일 대학원생과 이란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와 교제 및 노방전도를 함께 합니다.

다니엘의 소꿉친구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놀고 지내며 알게 하신 것은 독일인들의 삶과 고민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일, 자녀 이슈, 피부미용, 코로나로 인한 사업과 경제적 타격, 가족 친척간의 불화 문제 등. 자연스레 신앙을 나누게 되었는데, 지명만 폴란드 강사 수녀님이 유럽의 각 지역을 돌며 성당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

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어렵고 드문 기회도 주셨습니다. 수도권 유적지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니 말씀 쪽지 장반이 있어서 가족을 위해 뽑으라고 권면하였고, 집에 돌아와 부부가 성경책을 함께 찾으며 읽도록 하였는데, 평생 처음으로 성경책을 열었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가족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분노를 표출하는 바람에 관계에 금이 갈까 노심조사하며 복음 증거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시고 목목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개인 간증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증거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감탄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제목

1. 엄마의 항암 후 5년간 정기 검사를 위해,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항상 채워주시도록
 2. 저의 수술 부위가 온전히 깨끗이 치유되고 떨어진 체력 근력 회복을 위하여
 3. 말씀과 무릎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관계 및 노방 전도에 열매를 주시도록
 4. 독일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영혼 구원의 역사와 예비하신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5. 저의 영어와 독일어 소통에 실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 전혜진 / 다니엘서 선교사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9.성경적 결혼의 기초

성경적 결혼의 목표가 연합이라면,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 결혼의 기초'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같은 문제는 건축의 기초공사와 같이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은혜(Grace)

성경적 결혼의 첫 번째 기초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어떤 조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치료하시며, 성숙시키시며, 서로를 사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라, 가슴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에 대한 응답이 헌신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뜨거운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3) 모든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결혼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잘못의 원인을 배우자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모든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깨달을 때,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3. 용납(Permission)

성경적 결혼의 세 번째 단계는 용납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모

"성경적 결혼의 기초공사 은혜, 헌신, 용납"

집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2. 헌신(Devotion)

하나님의 은혜 위에 부부가 해야 할 것은 서로 간의 헌신입니다. 헌신은 섬김의 자세와 직결되는 것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헌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참된 헌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참된 헌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감정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세로 헌신하게 됩니다.

(2) 깊은 열망으로 헌신한다. 헌신은 강제나 의무에서가 아니

는 것, 즉 장점과 단점을 다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권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 용납은 감정을 초월한다.

용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2) 용납은 용서(Forgiveness)이다.

용납은 결혼생활 가운데 배우자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란 감정이 아니고 승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자신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 446-5000 / www.lbcg.com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시라미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Prairie Ave.,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2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d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iblehall.org / www.b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살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t-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살비치 리저널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 복음전파선교회(복음선교회) 상담사: (월-금) 오전 10:00~오후 4:30 사역대상: 1. 영성사역 2. 영성훈련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안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공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 Tel: (714) 446-6200, www.grace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주일 3부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cbk.kim@cbce.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